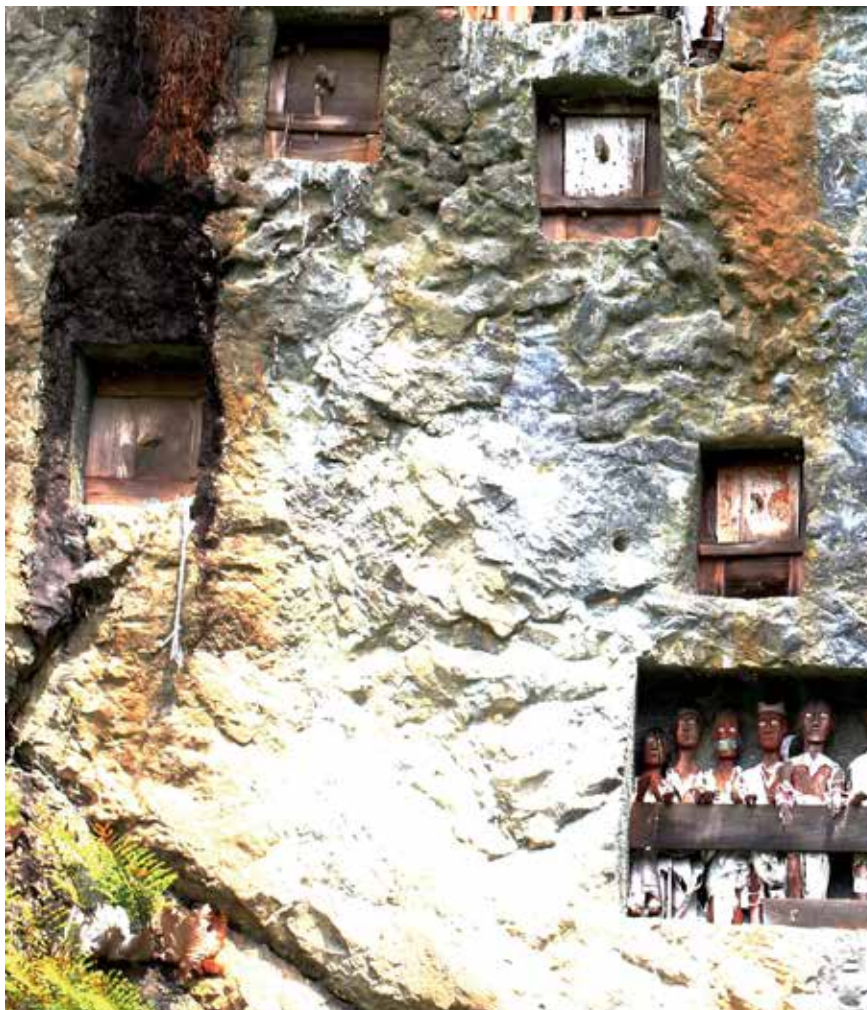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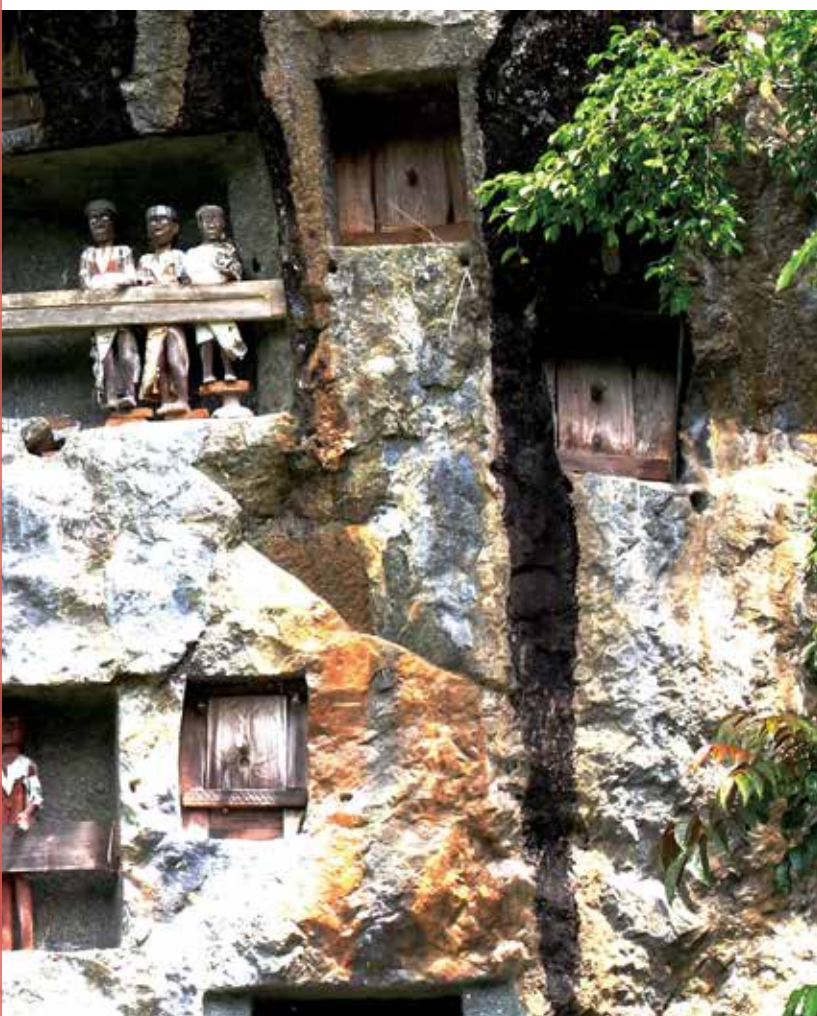


2014 연차보고서

SNUAC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목차

2014 연차보고서

5 비전

6 인사말

7 조직

8 아시아연구소의 2014년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12 동북아시아센터

14 동남아시아센터

16 중앙아시아센터

18 대중문화 프로그램

19 미-중관계 프로그램

20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21 시민사회 프로그램

22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23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

24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25 환경협력 프로그램

26 외부 연구 지원사업

30 학술행사

41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인재 양성사업

42 KF Global e-School Program

44 전국 대학원생 포럼

45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

45 아시아연구 박사논문상

46 연구인턴십 / 동아리

47 특별기획사업: 인도네시아 문화주간

48 출판

50 미디어

52 후원/재정

53 연혁

54 사람들

표지사진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섬 남부 내륙에 사는 토라자 (Toraja) 사람들은 죽음을 축제처럼 맞이하고 죽은 뒤에 도 새로운 삶이 계속된다고 믿고 있다. 사람들이 죽으면 '람부솔로(rambu solo)'라는 독특한 장례의식을 치른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는 데 보다 죽는 데 더 많은 돈을 들인다. 암벽을 파서 조성한 묘, 망자를 닮은 실물 크기의 목각 인형 '따우 따우 (tau tau)'가 산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듯 서 있다.

사진: 정연식 교수(창원대 국제관계학과)



비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SNUAC)는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공생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학으로서의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로서의 한국학'을 어떻게 심화할 것인가?

인사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2014년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사업의 주요 성과와 현황을 정리한 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설립 이후 지난 6년간 아시아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 안에서 어떠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지식이 각 사회가 처한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해야 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아시아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아시아 연구와 다른 지향성과 내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함께 시작된 유럽의 아시아 연구와 냉전의 심화와 함께 시작된 미국 중심의 아시아 연구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연구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지식 생산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리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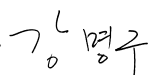
선도적 아시아 연구를 위한 고민의 결과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한국학으로서 아시아 연구', '아시아 연구로서 한국학'이라는 인식론적 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연구의 '펼침(extension)'으로써 아시아 연구, 아시아 연구의 '겹침(folding)'으로써 한국연구를 새로운 지식 생산의 방향과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펼침의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개별 연구자들이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아시아적 맥락으로 확장해서 연구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겹침의 차원에서는 아시아의 지역 연구자들이 세계 질서의 변동이란 외부의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아시아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과제를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의 선도적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펼침과 겹침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에 있어 많은 성과를 얻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연구과제 개발로 지식 생산의 재정적 기반을 탄탄히 다졌으며, 다양한 학술행사 및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아시아 시대의 대중화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묵묵히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아시아연구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수행한 사업들과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선도적 지식을 생산하는 아시아연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온 아시아 시대를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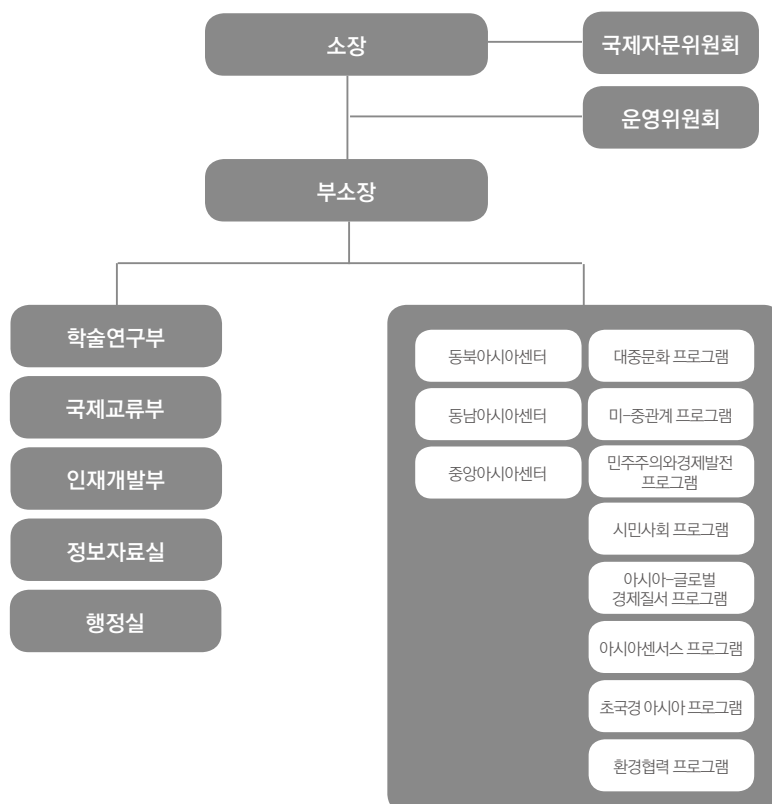
2015년 3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조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에 기초한 학술연구, 국제교류 및 인재개발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종합형 연구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3개의 지역연구 센터, 8개의 주제연구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는 3개의 전문 부서(학술연구부, 국제교류부, 인재개발부), 행정실, 정보자료실을 두고 있다.

2014년에는 중앙아시아센터가 지역센터로,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이 주제연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아시아 자본주의, 아시아 가족, 아시아의 냉전 등의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운영위원

위원장: 강명구(언론정보학과, 소장)

위 원: 김선구(경제학부)

김진엽(미학과)

김청택(심리학과)

박배균(지리교육과)

박찬욱(정치외교학부, 사회과학대학 학장)

박충모(화학부)

백창재(정치외교학부)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왕한석(인류학과)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홍백의(사회복지학과)

2014년도는 아시아연구소가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룬 한 해였다.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구과제 개발과 더불어 지식 생산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으며, 다양한 학술행사 및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아시아 시대의 대중화에도 한 발 더 다가섰다. 또 박사학위 논문상, 연구인턴 제도, 대학원생 포럼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의 허브'라는 비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아시아연구소의 2014년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

아시아 연구기관 성과를 한 자리에

먼저 국제교류 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는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개최이다. 2014년 3월 20~21일에 연구소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를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했다.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12개국에서 아시아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20개 주요 아시아연구기관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는 아시아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전 세계 아시아 주요연구소 소장 및 국내외 아시아연구 전문가들이 아시아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아시아연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여러 연구 기관들의 실질적인 상호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소장회의를 계기로 아시아연구소의 국제 학술교류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 간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협력에 기초한 지식 생산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다지게 된 것이다.

해외 유명 석학들의 강연 및 교류

2014년도에는 해외 유명 석학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비롯한 교류가 활발했던 한 해이기도 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 아시아연구소의 프라센지트 두아라(Prasenjit Duara) 교수는 3월 아시아연구 소장회의에 참석하여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 이를 아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아시아 리뷰〉에 게재했다. 또한 2015년 1월에 진행된 대학원생 포럼에 참여하여 새롭게 발간한 저서에 대한 북 토크를 전국에서 모인 아시아연구 학문후속세대들과 함께 진행했다.

또한, 미국 문화연구 분야의 석학인 로렌스 그로스버그(Lawrence Grossberg), 냉전연구 분야의 석학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와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인 권현익 교수, 중국 근현대사상사를 연구하는 대표적 사학자인 쉬지린(许纪霖) 교수, 세계적 저명 학술지 〈Theory, Culture and Society〉의 편집장인 마이크 페더스톤(Mike Featherstone) 교수 등 사회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지난 한해 동안 아시아연구소를 방문하여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의 방문은 해당 학문 분야의 장기적인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히 중요하다.



프라센지트 두아라 교수



로렌스 그로스버그 교수



쉬지린 교수



마이크 페더스톤 교수

e-School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아시아연구소는 e-School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에도 앞장서왔다. 지난 4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8개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37개의 강의를 개설하며 각 지역 및 국가별 최우수 명문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왔다. 2014년에는 중국의 북경대, 칭화대, 러시아의 고등경제대, 독일의 튀빙겐대, 베를린 자유대, 프랑스의 파리7대학(디드로)과 이날코 및 베트남 하노이 국립인문사회대와 서호주대의 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6명의 서울대 교수진이 참여하여 정규학점이 부여되는 13개 강의를 개설, 운영했다. 또한, 3회에 걸친 해외 수강생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4개 대학 35명의 해외 학생들을 초청하여 실질적인 교류와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시아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외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체험과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다.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한해 세계의 다양한 연구 기관 및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특히 아시아연구를 위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인 InterAsian Connections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도 InterAsian Connections V : Seoul 회의의 공동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세계 아시아연구의 네트워크인 ICAS(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운영위원회에 아시아연구소 소장이 참여하기로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확장을 충실히 이루었던 한 해였다.

제도화와 내실을 기한 한 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한 지식 생산

아시아연구소는 세계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연구 역량을 집중하여 학술적 의의가 높은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세계적 지식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 연구의 주제로 아시아의 가족, 아시아 자본주의 등을 기획과제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일에 힘썼다.

이러한 기획과제는 일회적인 연구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구 공동체로의 성장을 목표로 진행된 것으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과 장기적인 비전 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들 과제는 아시아의 독특한 근대성의 면모를 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주제들이란 점에서 세계적인 지식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연구소는 앞으로도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 기획을 지속하여 연구 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여하여 지식생산의 허브라는 비전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다.

안정적 연구를 위한 기반 확립

2014년도는 연구기반 구축의 측면에서도 큰 도약이 있었던 한 해이다. 201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아시아연구소는 연구재단의 토대연구사업 1건과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 신규과제 1건에 새로 선정되었고, 기존 소형 과제에서 승격한 SSK 중형 과제 2건 연구단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또한 기존에 진행해온 신흥지역연구사업이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2단계 사업에 진입하여 보다 확장된 주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아시아연구소는 기존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외부 연구 수주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관련 지식 생산의 허브로 성장해왔다. 이번 신규 사업단 출범과 기존 연구 사업 확장을 통해 명실상부 아시아 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화된 노력의 성과들

2014년도는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난 해이기도 하다. 동남아시아센터,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미-중관계 프로그램 등에서는 그간의 연구 및 사업 성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또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게재하는 등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4권의 아시아연구소 총서를 발간하는 등 저술 및 연구 지원 사업의 성과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아시아리뷰>도 내실있는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학술지로 질적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학진 등재를 목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상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였으며, 온라인 뉴스레터인 <아시아연구소 소식>을 창간하여 아시아연구에 관심을 둔 많은 사람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특별 기획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문화주간을 진행하여 아시아 연구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학문후속세대 양성

기존의 신진학자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박사학위 논문상으로 개편하여 재정 지원은 물론 발표회를 통해 연구 성과가 구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에 신설된 'SNUAC 박사논문상'은 아시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수한 학술적 성과를 거둔 박사 논문에 대해 우수 논문 1편당 500만 원의 상금 시상과 함께 수상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 시 1편당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우수 논문 시상뿐만 아니라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우수 아시아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초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아시아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경험을 결합한 연구인턴제도를 시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 두 번의 학기 동안 2개 기수 25명의 인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시아학 개론'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각 연구 단위에 배치된 인턴들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2014년도는 제도화와 내실을 기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에도 커다란 도약을 이룬 한 해였다. 아시아연구소는 2015년도에도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지식을 생산하는 아시아 연구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취약한 국내의 아시아 권역별 지역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합하여, 국내 학계 및 경제, 산업계의 요청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회의 성장발전에 관건적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들을 진단, 처방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2014년에는 중앙아시아센터가 지역센터로,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이 주제연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앞으로도 아시아 연구소는 아시아 자본주의, 아시아 가족, 아시아의 냉전 등의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연구 및 소수자를 통해 본 동아시아 근대성 연구

연구기반구축

동북아시아 지역은 정치체제나 경제규모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냉전과 분단,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공통의 역사를 겪어왔다. 동북아시아센터의 연구기반구축사업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러한 사회·역사적 경험들을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2014년에는 크게 동북아시아 지역에 냉전이 남긴 영향을 탐구하는 사업과 소수자(minority)를 통해 본 동북아시아의 식민주의/탈식민화와 근대성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적 대결이 가장 격화되었던 대만의 금문도와 중국의 하문을 포함한 소양안의 냉전과 탈냉전 과정을 연구하였으며, 현지답사를 통해 귀중한 자료들을 획득하고,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여 풍부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동북아시아센터에서는 최근 두 차례 국제 유관학회를 통해 한국의 냉전연구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동북아시아센터 주관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사 비교연구>, 2015년 2월에는 냉전학회 주관으로 <Cold War Studies and Korea: Critical Perspectives and New Vision>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연구소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전자는 Wilfried Loth, Bernd Greiner, Axel Schildt 등 독일의 베를린자유대학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연구소의 냉전 연구자들과 한국의 젊은 사회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사상, 제도, 일상 또는 장치, 장소, 존재를 조명하고, 서로 간의 계보적 연속과 단절,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기계적 단순 비교를 지양하고 냉전의 다층성과 복합성을 드러내는 학술회의가 되었으며, 여기에는 냉전의 개념과 공간, 점령/분단의 문제, 안보와 평화, 경계, 사건과 문화냉전, 영토와 시민권 등의 주제가 다양하게 토의되었다. 후자에는 Bruce Cumings(University of Chicago)와 함께 한국의 역사학자나 문화냉전 연구자들이

동북아시아센터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상정한다. 한국과 북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과의 중첩적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평화로운 질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 중심의 관점과 주변 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관점의 균형을 추구한다. 또한 대륙중심적 시각과 해양중심적 시각 간의 균형도 필요하다. 연구의 중점분야는 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연구, 동북아시아 협력과 공동체론 연구,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연구, 문화/역사유산 연구, 지역 거버넌스(아시아 국제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연구), 동아시아 소수자 연구이다.

주로 참여하였다. 여기에서 Bruce Cumings는 한국이 냉전의 세계사적 중심임을 확인하였고, Changes in Cold War Studies, Global Cold War and Korean Division, Everyday Lives and Cultural Forms 등의 세션에서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보다 체계적인 냉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냉전학회 조직을 결정하였고, 동북아시아센터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사와 서양사 연구자들, 국제정치학과 사회학 및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 문학과 문화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적, 동아시아적 냉전을 토론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학술활동을 통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냉전의 다층성과 복합성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한국의 냉전연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11월에는 '소수자와 사회적 배제로 본 일본 제국과 식민지라는 주제로 한국, 대만, 일본의 다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발표 주제는 (1) 배제의 지식과 제도, 정신병과 한센병 (2) 소수자의 노동 형태와 공간 (3) 도시 빈곤의 형성과 소수자 (4) 일탈과 종교 (5) 사회적 배제로서의 가족 제도로 나누어진 행되었다. 연구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국, 대만, 일본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소수자들의 형성과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동형성과 더불어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에 의해 발생한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대만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학술서 집필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에 대만과 한국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로 출판될 예정이다. 한편, 동북아시아센터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며 연구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소수자 연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현재 소록도 100년사를 집필 중이다.



네트워크 기반구축

동북아시아센터에서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워크숍 및 콜로키엄을 개최한 바 있다. 중국의 자유주의 계열의 지식인으로 평가되는 쉬지린(许纪霖, Xu Jilin) 화동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교수를 초청하여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현대 중국 사회정치 사상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콜로키엄은 중국 사회정치 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현대 중국 정치 변동의 사상적 기반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9월에는 에히메대학교(愛媛大学) 법문학부 교수이자 일본의 문화냉전 연구를 활발하게 이끌고 있는 츠치야 유카 교수를 초대하여 문화냉전의 동북아시아적 지평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공동연구의 가능성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현재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대학(University of Groningen)의 국제관계 조교수로서 국제관계이론, 시각문화연구, 비판적 지정학 등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심 박사를 초청하여 'Visual Politics & North Korea: Seeing is Believing'이란 제목의 콜로키엄을 개최하고, 유럽의 한국학 현황에 대한 의견교환과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동북아시아센터는 2015년 2월, 한센인(한센병 회복자)에 대한 최근의 연구, 법률 및 문화운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콜로키엄과 최근 일본의 한센병 회복자를 촬영하여 다큐멘터리 사진집을 출판한 권 철 사진작가를 초청하여 사진전을 개최했다. 한센인권변호단과 공동 주최한 본 행사는 현재 한센인 관련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대만의 한센인권운동의 현황, 그리고 일본 한센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 등을 비교하고, 시민사회와 네트워킹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심화와 확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센인 콜로키엄/사진전(2015. 2. 3)

연구 성과 목록

정근식(2014). 중국 갑오전쟁기념관에서 보는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 : 1894년 동북아시아전쟁의 개념화를 위하여. [아시아라뷰 4권 1호](#)

정근식(2014). 일제하 대만 출판경찰과 검열텍스트. [사회와역사 104집](#)

정근식·오준방(2014). 금문도 냉전생태의 형성과 해체 : 지뢰전사관 현성의 경로를 따라서. [사회와역사 104집](#)

김민환(2014). 동아시아 변경 섬의 지정학과 냉전체제 성립기 국가폭력 발생의 구조. [탐라문화 46집](#)

김민환·정현욱(2014).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아태연구 21권 3호](#)

김민환(2014). 경계의 섬과 포격전의 기억: 단절과 이동의 변증법과 대만 금문도의 냉전 및 탈냉전. [사회와역사 104집](#)

주윤정(2014). 시각장애인의 구술 전통과 역사 전하기. [구술사연구 5권 2호](#)

주윤정 번역, 추스제(2015). 대만 지구 중등학교 역사교육의 쟁점 - 중일갑오전쟁 120주년에 즈음하여. [역사비평 2015 겨울호](#)

전원근(2014). 동아시아 최전방 낙도에서의 냉전경관 형성: 1970년대 서해5도의 요새화와 개발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4집](#)

사람들



디렉터: 정근식(사회학과)

운영위원: 장경섭(사회학과), 정용욱(국사학과), 박태균(국제대학원), 이정훈(중문과)

자문위원: 쉰게(중국 사회과학원), 진정원(대만 중앙연구원), 츠치야유카(에히메대학)
한경구(자유전공학부), 권현익(케임브리지대)

전임연구원: 주윤정(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아마토 유미코(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 소비자연구 및 메콩유역 개발 환경협력 거버넌스

연구기반구축

동남아시아센터의 연구기반구축에는 두 축이 있다. 하나는 신흥지역연구팀과 다른 하나는 기반구축사업팀이다. 먼저 신흥지역연구팀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두 국가는 언어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낮은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흥지역연구 1단계에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에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기업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신흥지역연구 2단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자연구이다.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 소비자들이 타 지역과 구별되는 소비 트렌드, 소비행동, 소비문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에스노마케팅(Ethno-marketing)이라는 소비연구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야심차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반구축사업팀은 '메콩 유역의 수자원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모색'이라는 연구주제로 2년 차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네트워크와 현지조사를 기초로 2년 차에는 심도 깊은 세미나를 통해 연구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2013년 3월부터 지난 2년간 메콩지역에 관한 기반구축 사업팀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메콩유역 개발과 환경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일반공동연구과제를 수탁하게 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부터 3년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메콩연구의 새로운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본 센터는 연구의 내용을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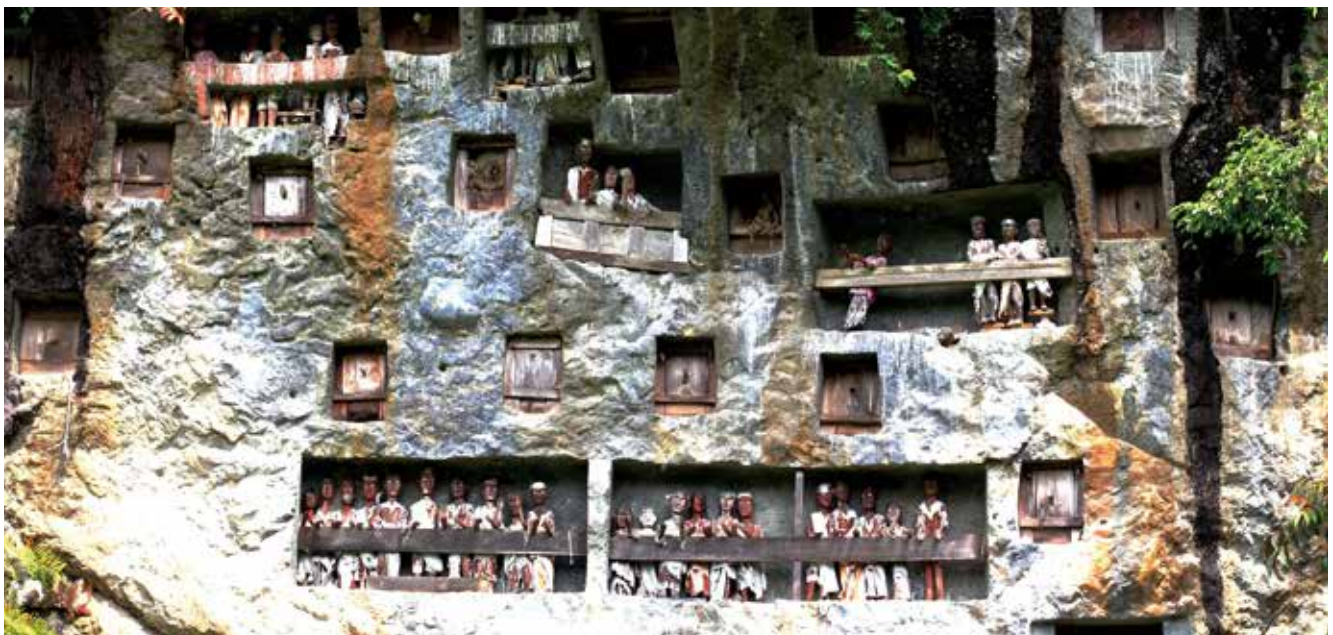
2014년은 지난 2012년 하반기에 출범한 동남아시아센터가 약 2년간 연구기반과 연구역량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도약의 시기였다. 동남아시아센터는 그동안 외부 지원을 받고 있는 신흥지역연구와 내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반구축사업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해왔다. 신흥지역연구 사업은 2014년 8월에 신흥지역연구 1단계 2년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단계 3년간의 사업을 출발하게 되었다. 메콩 지역 연구를 중심으로 한 기반구축사업팀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일반공동연구팀으로 전환되어 본 연구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다.

(<http://seacenter.snu.ac.kr>)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동남아시아센터 홈페이지에는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 성과만 공개한 한계가 있었다. 2014년에는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여 기반구축사업팀의 연구주제인 메콩 유역 국가들에 관한 정보와 지식도 함께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학술연구활동

동남아시아센터의 학술연구활동은 연구세미나, 초청강연, 콜로키엄, 국제컨퍼런스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신흥지역연구팀은 새로운 연구주제인 '소비문화 연구와 소매유통시장 속의 소비자 전략연구' 진입에 맞추어 내부 연구세미나를 2014년 하반기에 2주에 한 번 진행했다. 즉, 소비연구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부 연구세미나에서는 <Qualitative Consumer and Marketing Research(Belk, Russell et al., 2013, Sage Publication)>, <마케터를 위한 에스노그래피: 질적 조사시대를 사는 마케팅 담당자의 생존전략(하이 매리엄폴스키 / 이용숙 외 옮김, 2006, 일조각)> 등을 다루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소비시장의 기존 연구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관한 신흥지역연구팀으로 2014년 하반기에 중요한 특별행사로 '인도네시아 문화주간'에서 인도네시아에 관한 학술제인 '인도네시아 문화 깊이 읽기'를 진행하였다. 이 학술제에서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가중수, 슈지초대), '인도네시아 전통 미용 관행'(조윤미, 덕성여대), '인도네시아 주술과 의례'(강윤희, 서울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문화'(김형준, 강원대), '이주를 통해 본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전제성, 전북대)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신흥지역연구팀의 직접적인 학술연구활동으로는 학술발표회, 지역설명회, 이슈페이퍼 그리고 정책보고서 등이 있다. 우선, 2014년 4월 4일에는 한-아세안센터 후원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한인기업 사례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일반대중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였다. 여기에는 동남아에 관심 있는 약 90여 명의 일반대중과 관련 기업인이 참가하였다. 2014년에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지역설명회 제3기를 모집하여 전문가 8인을 초청,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영화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약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강의 주제는 1강: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리적 입문, 2강: 인도네시아경제투자현황과 전망, 3강: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일상에서의 다차원적 영향력, 4강: 인도네시아 선거민주주의와 부패, 5강: 인도네시아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6강: 인도네시아 노사관계의 이해, 7강: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문화논리와 사회관계, 그리고 기업경영, 8강: Fashion과 Passion 사이 등이다. 또한 한국 기업의 현지 경영 및 시장 진출 전략에 필요한 연구 주제를 발굴, 각 주제를 심층 분석하는 이슈페이퍼와 정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슈페이퍼로는 <말레이시아 기업의 인력관리 현황(통권 5호)>, <말레이시아 고등교육현황(통권 6호)>, <ASEAN 연계성프로젝트와 해상-해운 물류연계성(통권 7호)>, <인도네시아 산림자원과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통권 8호)> 등이고, 제2호 정책보고서로 『2015 아세안 공동체 건설현황과 전망: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별 접근』이 있다. 이렇게 발간된 이슈페이퍼와 정책보고서는 동남아시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공개하고, 국내외 기업 및 국가기관에도 배포하고 있다.

기반구축 사업팀의 연구활동은 국내-국제학술대회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국내학술대회로 환경정책과 환경이슈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는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를 4월 18일에 개최하였다. 동남아시아센터와 한국환경사회학회가 공동 주관한 본 학회는 '에너지 민주주의, 그리고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대주제 하에 메콩연구 3편을 비롯하여 총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내외 환경정책 및 환경연구자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2014년 기반구축사업팀의 가장 큰 학술활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국제학술대회 'Rethink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Mekong: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Mega-development and ODA'이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동남아시아센터 뿐만 아니라 한신대학교 지역발전센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조직위를 구성하여 공동주관한 행사로, 13명의 발표자와 동수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외 연구자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제학술대회는 동남아시아센터가 2년간 구축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최한 것으로 네트워크 구축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한인기업 사례연구 발표회: 현지화 전략의 사회문화적 함의(2014. 4. 4)

네트워크 기반구축

동남아시아센터는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주제와 메콩연구팀 연구주제와 관련된 학자, 대학, 연구소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신흥지역연구팀과의 사업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의 단체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협력체결 기관	일시	주요 협약내용
재말레이시아 한인상공회의소	2014년 2월 4일	인력 및 정보 교류 현지 진출 한국기업 지원사업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UKM) 말레이시아국제관계연구소	2014년 2월 20일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류
〈사〉한국동남아연구소	2014년 6월 5일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류

또한 다음과 같이 2014년 초청강연을 통하여 연구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꾸준히 노력하였다.

Unity in Diversity: The Hope and the Struggle of Opposite in Pluralistic Societies, Malaysia as a Mirror | Shamsul AB(UKM KITA)(2014. 5. 13)

Benefit Sharing in the Mekong River Basin | 이승호(고려대)(2014. 5. 8)

Islamic Finance in Malaysia: Politics and Policy Making | Jikon Lai(멜버른대)/강대창(KIEP)(2014. 6. 10)

한국사회변동과 중산층의 소비문화 | 남은영(아시아연구소)(2014. 6. 18)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의 법체계 및 기업법법 동향 | 이준표(한국외대)(2014. 10. 16)

Anthropological Approach on Mekong Border Riverscape | Jakkrit Sangkhamanee(출라롱콘대학, 태국)(2015. 1. 14)

연구 성과 목록

오명석 편(2014). <말레이 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 삼성, 미원, 삼익, 코린도의 동남아 현지화 전략>. 서울:놀민

이요한(2014). 메콩유역 수자원 개발과 라오스의 전략적 포지셔닝. [국제지역연구 제 24권 4호](#)

이요한(2014). 메콩 수자원개발 이익과 비용주체의 쟁점과 갈등: 본류댐 싸이부리와 돈사홍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 24권 2호](#)

전제성(2014). 해외투자 한인기업 노사관계의 현지화: 미원인도네시아 사례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 24권 2호](#)

강민정(2014). Entry Modes Strategy in FDI: Expansion of Korean Rerailer into China and Indonesia. [유통과학연구 제 12권 7호](#)

사람들



디렉터: 오명석(인류학과)

공동연구원: 박수진(지리학과), 윤순진(환경대학원),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김형준(강원대 문화인류학과), 이응철(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전임연구원: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요한(아시아연구소), 이수현(아시아연구소), 정법모(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중국 부상으로 본 중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 활문화아카이빙

연구기반구축

중앙아시아센터는 2014년 3월 아시아연구소에 새로운 지역기반 연구센터로 발족되었다. 본 센터는 아시아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연구기관을 지향하는 아시아연구소 취지에 맞춰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주변 지역 및 국가들과 맺고 있는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 또한 주요한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센터의 주요 연구대상 지역인 중앙아시아 지역은 좁게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국을 의미하고, 넓게는 몽골,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부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아시아 내지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은 예로부터 동서교통로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의 동과 서는 물론이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진행된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여 중국, 초원, 서아시아의 제국들은 물론이고 근대에 와서는 제정러시아와 영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그레이트 게임'의 핵심 대상지였다. 또 한 소비에트시대 이래로 이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의 산지로 주목 받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국가 행위자들과 초국적 자본이 에너지를 매개로 교류하고 각축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들 중 한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센터는 이러한 국내외적 필요에 부응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개하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즉,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세밀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성과를 생산을 통해 크게는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 중요 지역들을 포괄하는 아시아연구 허브로 위상을 정립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작게는 국내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 역량이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될

중앙아시아센터에서는 구 소련권 유라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네트워크 확충을 2014년도 목표로 삼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콜로키엄을 개최하고,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였으며, 현지 조사를 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두고 이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연구논문, 전문서적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본 센터에서는 2014년 연구주제를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으로 잡고, 지역 패권국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중국과 이러한 중국의 성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각국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중국이 이룩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성장은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주목 받고 있는 현상이다. 중국의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지역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중앙아시아센터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라는 주제 아래 2014 연구연도에 다양한 방식의 연구들, 즉 콜로키엄, 초청강연, 워크숍, 학술회의를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역사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앙아시아센터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연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이 1937년 강제이주를 통해 다수 거주하게 된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은 고려인을 매개로 한국과 긴밀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고려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지는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던 본 센터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토대사업 중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사업을 수주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토대 연구는 고려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확대·심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하고, 이를 DB로 구축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려인이 주로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3국에서 인터뷰, 채록, 문서 및 도서 확보 등을 통해 고려인 전통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국내에서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전자자료 형태로 DB화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전달하고, 부가적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문화에 대한 총 6권의 총서(자료집 3권, 저술 3권)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1차년도(2014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자료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현지조사작업을 진행했다.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강정원 교수를 비롯한 2명의 공동연구원(고가영, 정형호)과 2명의 전임연구원(남영호, 양승조), 그리고 4명의 연구보조원 등 모두 9명이 알마티, 카라간다, 크즐오르다 세 도시를 중심으로 자료 조사 및 수집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작업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트레티 인테르나치오날, 우슈토베 등과 같이 중심 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지역은 물론이고, 아스타나와 같은 신도시, 알취르, 카를라과 같은 소련 시기 수용소 등을 방문하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흔적을 조사했다. 연구단은 2015년 8월 31일까지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DB화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기반구축

중앙아시아센터는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4년에는 유라시아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독자 패널을 구성하여 참석했다. 또한 해외 연구소와의 협력관계 구축도 진행하여서, 11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산하에 있는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CAPS)와 MOU를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러시아의 시각 - Gleb A. Ivashentsov(2014. 8. 11)

학술연구활동

중앙아시아센터에서는 이번 2014년도 연구사업기간에 초청강연, 콜로키엄, 학술회의, 워크숍의 형태로 학술연구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중앙아시아사의 세 가지 구성요소: 환경, 민족, 종교'(이평래),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러시아의 시각'(Gleb A. Ivashentsov)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초청강연을 가졌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의 대응'이라는 대주제 아래 총 세 차례에 걸쳐 콜로키엄을 가졌다. 그리고 2014년 11월 21일에는 유라시아학회와 공동으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본 센터의 2014년 연구주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고민과 이에 따른 그 동안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Eurasia Initiative and Korean-Russian Cooperation: In Search of Cross-border Cooperation and Peace-building in East Asia)에 신범식, 김태연, 고가영이 독자 패널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연구센터 내부 구성원들의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 또한 진행하여 중앙아시아 현황에 대한 주제 2회, 독회 6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현황에 대한 주제 1회 등의 모임을 가졌다.

연구 성과 목록

고가영(2014). 중국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의 특성: 일방적 팽창인가? 지역적 협력인가?. [한국서양문화사학회 33호](#)

김태연(2014). 중앙아시아의 민족분쟁: 1990년 6월 키르기스스탄 오쉬(Osh) 사태의 그림자. [아시아리뷰 4권 1호](#)

양승조(2014).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이슬람 정책의 변화. [아시아리뷰 4권 1호](#)

사람들



디렉터: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토대 연구 사업단 연구책임자: 강정원(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고가영(아시아연구소), 정형호(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태연(아시아연구소), 남영호(아시아연구소), 양승조(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 창의세대, 한·중·일 청년들의 삶과 고뇌

연구 성과 목록

김홍중(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7호 제1호](#)

김홍중(2014),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8집 4호](#)

오종환·장수연·이준환(2014), 한글 자음 및 모음 사용을 통해 드러나는 온라인에서의 청서 표현에 대한 탐색적 연구(An Exploratory Study on Usage of Korean Consonants and Vowels for Delivering Emotion), [한국멀티미디어연구 17권 7호](#)

사람들



디렉터: 김홍중(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이준환(언론정보학과)
한규섭(언론정보학과)
김석호(사회학과)
주요정(아시아연구소)
신혜선(아시아연구소)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문화가 삶의 총체'라는 인식 아래 현재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삶과 욕망, 가치, 세계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초기 3년간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꿈과 고뇌'라는 주제를 설정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특히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에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A Comparative Research on East Asian Creative Generation - Focusing on Korea and China)'라는 주제로 지원, 선발되어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기반구축

대중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 청년들의 꿈과 고뇌를 이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양적 설문조사, 질적 담론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년에 이어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 청년들의 일상 대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서베이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한국과 일본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비롯하여 한국노동패널, 교육고용패널, 복지패널, 일본의 약년패널 조사(JLPS-Y)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양국의 20~30대 청년 세대의 삶의 조건과 현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관심 키워드의 경향을 파악하고 청년 세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한·중·일의 '청년 담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일본·중국의 연구팀과 협력체제를 구축, 청년세대가 놓인 현실을 구체적으로 비추어볼 수 있는 다양한 인터뷰 및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구축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연구센터로의 장기적 확대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국제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공동 연구와 교육 국제화의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우선,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인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A Comparative Research on East Asian Creative Generation - Focusing on Korea and China)'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청화대(연구책임자: 진젠빈(金兼斌, 언론정보학)과 공동연구체제를 구축, 공동워크숍 및 공동서베이, 공동분석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를 위해 2014년 12월 초 본 연구원 전원이 중국을 방문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5년에도 지속적인 공동 프로젝트가 기획되어 있다.

일본 청소년연구회(<http://jysg.jp/>)는 Sophia University, Hirosaki University, Tsukuba University, Seitoku University 등 일본 전역 14개 대학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체이다. 멤버 중 東京学芸大学(Tokyo Gakugei University) Tomohiko Asano(浅野智彦) 교수는 2013년 대중문화 프로그램에서 개최한 『2013 East and Asia Chung nyun Studies Workshop』에 패널로 참가한 바 있다. 2015년 1월 중순 본 연구진이 일본 동경을 방문, 일본청소년연구회 Tomohiko Asano를 비롯, Ichiyo HABUCHI(弘前University, Izumi TSUJI(CUHO University) 등과 향후 연구 일정과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이 축적한 패널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한 가운데 한일청년 현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워크숍을 통해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학술연구활동

시 쓰는 청년들, 그 마음의 사회학(김홍중 교수), 한·일 청년들의 삶의 상태에 대한 패널데이터 비교연구(강명구 교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년들의 우울감 연구(이준환 교수), 동북아 3국의 청년 신보수주의 현상-한국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한규섭 교수) 등이 한·중·일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는 동아시아의 상상계, 전통, 그리고 포스트모더니티(프랑스 폴 발레리 몽펠리에 3대학 사회학과 Partick TACUSSEL 교수)를 비롯하여 중국 청년세대의 불안과 빈곤 : 신세대 농민공을 중심으로(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교수), 세대의 정치적 슬로, 세대화=사회문제의 부호변환(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 방황하는 청년들의 최전선: '평범함'에 대한 열정(서울대 사회학과 정수남 박사)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2015년 초에는 '동아시아 창의청년 연구팀 워크숍 시리즈'를 마련하여 동아시아에서 생존하고 활동하는 당대 청년들의 꿈과 고뇌, 삶과 노동의 현실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미-중 관계 프로그램은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와 규범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아연구소가 추구하는 '국제관계의 아시아적 접근법 창출'이라는 비전에 맞게 미-중 관계 연구에 관한 광범위한 학술적·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각국 연구자들이 학술교류와 정책토론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중 관계 영역의 우수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해안을 공유하고, 미-중 관계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이해를 제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연구기반구축

미-중 관계 프로그램에서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1차년도에 '한국, 미국 및 중국에서의 미-중 관계 연구 성과의 평가' 작업을 수행한 데 이어 그 결과물로 <미중관계연구론(서울대출판문화원, 2014년 출간)>, 2차 연도인 2014~2015년에는 '패권국-부상국 간의 상호인식: 19~21세기 세력전이의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 및 규범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해가는 선도국/패권국(leading/hegemonic states)과 이를 따라가면서 때로는 도전을 제기하는 부상국/도전국(rising/challenging states) 사이에서 인식의 작용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상정한다. 선례(先例)로 영-미 간 평화적 세력전이가 21세기 미-중 간의 역학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네트워크 기반구축

미-중 관계 연구와 관련해 한국 내 허브 역할을 지향하는 미-중 관계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네트워크 기반구축에 힘쓰고 있다. 첫째, 학기 중 매월 최소한 1회 개최하는 '미-중관계 세미나 시리즈'는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의 중심에 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는 총 9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4개 국가(한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의 8개 기관 및 대학으로부터 강연자를 초청한 바 있다. 둘째,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동경대 대안정책연구소(PARI)와 '한일 미-중 관계 대화'를 개최하였다. 셋째, 부정기적인 네트워크 기반구축활동으로 4월에는 아산정책연구원과 함께 'Assessing China's Power: Comparing with the United States'라는 주제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했으며, 5월에는 Asian Network for the Study of Local (ANSLoC)과 함께 미, 중의 지방관리(local governance)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연구활동

미-중 관계 프로그램에서 2014년 학술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행본 및 연구논문의 발간이다. 2014년 <미중관계연구론(서울대출판문화원, 2014)>의 출간과 SSCI 등재지 논문인 China's Evolving Views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1953~2012(Journal of Contemporary China)에 이어, 2014~2015년 프로젝트로 '패권국-부상국 간의 상호인식: 19~21세기 세력전이의 비교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세기 후반 패권국 영국의 대 미국 인식: 미-중 관계에의 함의 | 안두환(정치외교학부)
2. 20세기 전반부 영-미 금융패권의 전이: 미-중 관계에의 함의 | 박종희(정치외교학부)
3. 패권국 미국의 대 중국 인식과 오인식 | 정재호(정치외교학부)
4. 21세기 미-중 간 규범과 가치관의 충돌 | 김현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5. 평화로운 세력전이를 위한 역사의 교훈 | 정재호, 박종희, 김현준, 안두환

미중관계 세미나 목록(2014)

- Assessing China's Military Power | Andrew Erickson(미국 해군대학)(2014. 4. 1)
 US-China (Nuclear) Deterrence | Toby Dalton(카네기재단)(2014. 4. 24)
 US-China Relations Viewed from Taiwan | Tse-kang Leng(대만중앙연구원)(2014. 5. 1)
 History of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 John Delury(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2014. 6. 3)
 China's Strategic Rivalry with the U.S. in Southeast Asia | Li Mingjiang(난양기술대학교)(2014. 9. 15)
 이명박 시기의 미-중 관계 | 김태호(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2014. 11. 3)
 20세기 전반부 영-미 금융 패권의 전이: 미-중 관계에 대한 함의 | 박종희(정치외교학부)(2014. 11. 20)
 21세기 미-중간 규범 충돌의 국제정치 | 김현준(고려대 정치외교학과)(2014. 12. 3)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 미국 인식: 미-중 관계에의 함의 | 안두환(정치외교학부)(2014. 12. 10)

미-중관계프로그램

선도국과 부상국의 인식과 작용 및 중요성

연구 성과 목록

정재호 외(2014), <미중관계 연구론>, 서울대출판문화원

CHUNG Jae Ho(2014), China's Evolving Views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1953~2012,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3 No. 87

사람들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현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종희(정치외교학부)
 안두환(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협동조합 혼종성에 초점, 협동조합 정치경제연구

연구 성과 목록

윤태희·이경수(2014). 중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과 등장 원인. **협동조합연구 32권 3호**

미우라 히로키(2014). 시민섹터 관련 법인제도의 재편성에 관한 한중일 비교연구. **아태연구 21권 2호**

최나래·김의영(2014).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사회적 기업 : 영국과 스웨덴 비교연구. **평화연구 22권 1호**

이상직(2014). 언제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가?: 집단행동의 논리와 협동조합의 논리. **한국공공정책학연구 2권 1호**

김의영·홍지영(2014). 국제개발협력 규범 형성에 있어 지구시민사회의 역할: OECD 개발원조위원회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DAC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9권 1호**

Shin-Kap Han·Sang-Jic Lee·Yun-Joo Sung(2014). Shifting Focus in Development Studies: Papers in Development and Society, 1998-2013. **Development and Society SCOPUS Vol. 43 No. 1**

Heonik Kwon(2014). Spirits in the work of Durkheim, Hertz and Mauss.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Vol. 14**

사람들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안도경(정치외교학부)

한신갑(사회학과)

권현익(인류학과)

미우라 히로키(경희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을 선진국의 발전궤적과 비교 분석하고 동시에, 아시아 내부의 다양성을 인지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제공하고 이와 연관된 교육 및 국제교류활동도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기반구축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의 연구 활동은 3년에 걸쳐 협동조합의 혼종성에 초점을 맞추어 '협동조합의 정치경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2차년도(2014년)에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위시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결사체들에 대한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에 대한 지형도를 구축하고자 했다.

본 프로그램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연구를 3년 차에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가 한·중·일 사회적 경제의 '조직·제도적 측면'과 '환경·거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에는 연구의 심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나 조직의 운영에 관한 '과정·동태적 특징' 그리고 리더십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 등 개별적 사업 사례에 내재되는 '규범·기능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기반구축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다양한 학회와 연구소와의 교류를 확대해왔다. 2013년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연구하는 UN 최대 연구기관인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부소장인 피터 우딩 박사의 초청 강연을 주최하였다. 2014년에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정치학회(IPSA)에 참가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인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OOP 협동조합연구소와 국내 사례 연구를 위하여 정보 교류 및 세미나 교류를 하였고, 2014년 8월 본 프로그램의 공개 세미나 및 GSEF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학술연구활동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의 학술연구는 학술강연, 콜로키엄, 국내외 워크숍, 세미나 발표, 정례세미나 등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학술강연으로서는 '협동 조합 운동으로서의 대안대학'이라는 주제로 본교 김세균 교수의 강연을 주최했으며, 고려대 김현준 교수와 공석기 박사의 콜로키엄이 2014년 12월과 4월에 열렸다. 국내 워크숍은 2014년 4월 원주에서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2015년 1월 부산에서 미우라 히로키 교수의 발제로 한·중·일 사회적 경제의 맵핑에 관해 토론했다. 2014년 7월에는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정치학회(IPSA)에서 패널을 구성하여 'Political Economy of Cooperatives in South Korea'를 발표했다. 정례 세미나는 월 1~2회 진행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2년 차, 2014. 9. 1~2015. 8. 31 기간 지원 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협동조합 연구에 대해서도 보다 심화된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정치경제에 대한 학제 간 연구 결과를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혹은 서울대 사회과학대 4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늦어도 2016년 상반기 중 서울대 출판부에서 <협동조합의 정치경제: 협동조합의 혼종성에 대한 학제 간 연구(가제)>를 발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다양한 운동부문, 지역, 그리고 전략의 측면에서 시민사회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 국제협력 및 대안세계화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노력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정책 제언 서비스까지를 목표로 한다.

연구기반구축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14년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핵심 연구중심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 임현진 센터장과 공석기 공동연구원은 전체 사업의 총괄 기획을 담당하며 특히 한국 시민사회단체 지형도 구축사업과 시민사회의 대안세계화(사회적경제)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김태균 공동연구원은 아시아의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전담하기로 하였고, 국제개발과 시민사회 워크숍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 이후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라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하는데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2014년 하반기부터 아시아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 동안 아시아 지역의 ODA 사업이 충분한 기초 연구 없이 진행되는 것을 문제로 삼아온 연구자들이 국제개발 협력 연구모임을 시민사회 프로그램 지원 하에 출범시켰다. 참여자는 김태균, 공석기, 김성규, 박명준 박사이다. 이 월례모임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 국제개발협력 수행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기반구축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년 차를 맞이하여 2013년 활동에 대한 외부평가 내용(국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핵심 연구사업 구축)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조사 연구를 연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무총리실 지원의 연구과제에 (사)시민운동정보센터와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시민사회단체 센서스 타당성 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 시민사회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 동시에 공석기 박사는 2014년 하반기부터 SSK-NGO연구단(중형2단계, 한일장신대)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권역별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국제비교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연구자 간의 협력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연구 파트너인 일본 소피아대의 책임 교수(Dai Nomiya)와 2014년 7월 세계사회학 대회에서 공동세션으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홍콩 중문대의 책임교수(Kinman Chan)는 홍콩민주화운동을 견인한 리더로 활동한 이유로 연구교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대신에 2015년 1월 홍콩 현지 방문을 통해 소위 '우산운동(Umbrella Movement)'에 참여한 학생, 활동가, 그리고 교수(Chan 교수 포함) 등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연구교류를 유지하였다. 제 3차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국제비교워크숍은 2015년 11월 중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연구활동

2014년에는 아시아 시민사회 연구 강화를 위해 국내 공동연구원을 충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상반기에는 그 일환으로 박명준 박사(한국 노동연구원)를 모시고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과 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또한 '국제개발과 시민사회' 기획 워크숍 시리즈를 준비하여 경희대 손혁상 교수와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의 김성규 박사의 발표 순서를 가졌다. 2015년부터 박명준, 김성규 박사가 본 프로그램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핵심연구 사업의 하나인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11월에 제주대 SSK사업단과 공동으로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워크숍을 가졌다. 이후에도 '마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김성규 박사(성결대)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가졌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사회에 재부상하고 있는 탈핵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김혜정 위원(원자력위원회)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가졌다.

시민사회 프로그램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역동성 탐색

연구 성과 목록

임현진·공석기(2014). <뒤틀린 세계화 - 한국의 대안 찾기>. 나남

김태균 외(2014). Social Politics of Welfare Reform in Korea and Japan: A New Way of Mobilizing Power Resources. 서울대출판문화원

공석기(2014).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업 길 찾기. [신학과 사회 제28집 1호](#)

시민운동정보센터·서울대 시민사회연구센터(2014). [2014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기반구축 사업 보고서](#)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공동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태균(국제대학원)

정영신(제주대)

박명준(노동연구원)

김성규(한양대)

홍일표(더미래연구소)

국제경제질서 재편과 국제적 위험 연구

연구 성과 목록

안덕근·박지형·이지홍 편(2014).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진인진

안덕근·Patrick Messerlin(2014).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Never Ending Zeroing in the WTO?. *World Trade Review* Vol. 13 No. 2

노재연·박지형(2014).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Rules of Origin Requirements of Korea-US FTA with a New Measure of the Requirements. *Korea Economic Review* Vol. 30 No. 1

안덕근(2014). Systemic Issues for the Post MC-9 WTO System.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 Policy* Vol. 9 No. 2

안덕근·박정준(2014). WTO체제에서의 남북한 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의 약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과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국제적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무역체제에 관한 기존의 경제학적, 법학적 연구를 종합하여 학제적,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한편,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화해 갈 글로벌 경제질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연구센터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연구기반구축

2년 동안의 국제무역체제에 관한 경제학적, 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아시아와 관련된 학술연구 기반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무역이론, 통상법, 경제이론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연구진에서 계량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인 이석배 교수를 본 프로그램의 연구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실증분석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9월 SSK 중형사업단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김민정 박사를 전임연구원으로 확보하여 아시아와 글로벌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등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학술연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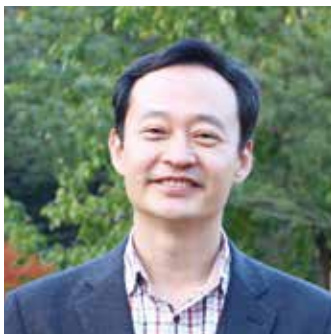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경제학/법학 분야의 일반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국내외 학술지에 4편의 연구논문(SSCI Journal에 3편)을 게재하고, 한편의 연구논문을 투고하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연구소 학술총서 시리즈(6) 단행본으로 연구위원인 안덕근, 박지형, 이지홍 교수 편저,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를 출간하여 아시아연구소의 단행본 저술에 기여하였다. 본 단행본 집필에는 연구위원들을 비롯하여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 7월부터 연구진 모두가 아시아연구소 기획연구과제인 '혁신·창조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 단행본을 출판하기 위해 기획 중에 있다. 또한, 아시아연구소와의 결합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중국보조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주 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술연구 논문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본 프로그램은 연구의 보편성 및 글로벌 독자층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네트워크기반구축

본 프로그램의 각 연구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유수 학자들과 논문을 공저하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2014년에는 각 연구위원들이 여러 국내외 학술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수행하였고, 이지홍 교수는 Princeton대학 경제학과에 visiting fellow로 장기 국외방문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였다.

주목할 만한 네트워크구축 성과로는 2014년 5월 Dartmouth College와 함께 세계무역 정책 및 체제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대회인 『Dartmouth/SNU Workshop on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Institutions』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6월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leading scholar들을 초청하여 국제무역 및 무역질서 관련 국제세미나인 'SSK International Workshop on Asia and World Trade'를 개최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세계 석학들과의 학술교류 네트워크 강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연구소 및 본 프로그램의 위상 제고와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1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한 국내외 연구자 초빙 세미나 및 강의를 통하여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학술교류를 강화할 수 있었다.

사람들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공동연구원: 안덕근(국제대학원)

이석배(경제학부)

이지홍(경제학부)

전임연구원: 김민정(아시아연구소)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에서는 기초자료센터의 구축과 아시아 서베이 및 지표 개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다. 기초자료센터 구축을 통해 아시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양적, 질적 경험 자료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축적할 뿐 아니라, 각국의 아카이브와 협력하여 기초연구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서베이를 개발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아시아 국가 간에 비교 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반구축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은 연구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기초자료센터의 구축과 아시아 서베이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시아에 대하여 국가, 도시, 개인 수준의 다차원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삼국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인 아시아 사회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시아 연구를 위해 긴요한 양적 자료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4년도에는 기존의 사회과학 자료센터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국가, 연도, 변수, 데이터 갱신주기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틀을 만들었다. 특히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아시아 국가간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흐름'과 '관계'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통합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는 통한다'는 주제로 아시아의 인구이동,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 아시아 창조성, 아시아의 환경위험,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조약의 네트워크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향후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연구소에서만 제공하는 고유한 특성의 자료들을 아카이브하는 사회과학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이관을 추진하여 아카이브와교육 및 연구를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센터로서 아시아국가들과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시아 각국의 대표적인 데이터 아카이브들을 연결하는 ADAC(Asia Data Archive Consortium)를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아시아 각국에 대한 비교연구를 촉진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기반구축

아시아 사회조사와 아카이브를 위한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Social Survey and Data Sharing)를 2014년 3월 6~7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각 대학에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사회조사기관 혹은 아카이브 기관에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중국 북경 사회과학원, 대만 Academia Sinica, 홍콩 시립대학교, 태국 KPI(KING PRAJADHIPOK'S INSTITUTE), 한국 KOSSDA 등에서 총 10명의 조사 및 아카이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학술연구활동

학술연구활동의 일환으로 6월 16~17일에는 Exploring the Role of Informal Institutions for Economic Coordination in East Asia 라는 주제로 중국과 한국의 관계망에 대한 비교연구인 연고주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센슈대학과 함께 사회사본 및 social wellbeing과 관련된 사회조사를 위한 한일 공동워크숍을 9월 5일 개최했다. 한편 데이터 아카이브의 현대적 방법과 의의를 모색하기 위해 10월 21일 '데이터 큐레이션: K-Poll의 경험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또한 '아시아는 통한다'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2014년 9~10월에 5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특집기사 시리즈로 게재되었고 2014년 하반기 아시아센서스 콜로키움에서 발표되었다. 이 연구 성과들은 아시아연구소 총서로 2015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

아시아국가들간 서베이 및 지표 개발

연구 성과 목록

이재열(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권 2호](#)

김청택(2015). 동아시아의 창조성. [아시아리뷰 4권 2호](#)

Hyun-Chin Lim·Markus Pohlmann(2014). A New 'Spirit' of Capitalism? - Globalization and the Spread of Neoliberal Management Thinking in Germany and the East Asian Economies. [Development and Society Vol. 43 No. 1](#)

Hyun-Chin Lim·Sukman Hwang(2014). South Korea's Developmental State at a Crossroads: Disintegration or Reemergence. [Korean Observer Vol. 45 No. 2](#)

박원호(2014). 정당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권 5호](#)

남은영(2015).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보안복지포럼 통권 221호](#)

사람들



디렉터: 이재열(사회학과)

공동연구원: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김청택(심리학과)

박원호(정치학과)

김종철(아시아연구소)

남은영(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 해역 초국경 이동과 흐름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은 2014년에 출범한 신생연구팀으로 극동러시아와 중국의 동북 3성,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을 '이동과 흐름'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팀의 목표는 국경을 넘는 다양한 구성단위들 간 교류협력의 실제 및 구성단위들에 대한 비교 연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주·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이 처해있는 복합적인 상황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들의 다차원적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기반구축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개별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해 연구하더라도 '이동과 경계의 변증법과 동아시아 이동성 체제의 전환'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분산되지 않고 응집력있는 연구 수행을 지향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는 (1) 동아시아 역내조직문화의 이동과 기업의 역할: 아이리스 오야마의 사례 (2) 대련: 초국적 흐름과 응결 집적의 도시공간 (3) 한국 중산층의 계층지위(class position) 유지를 위한 분투: 대련 국제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4) 조선족의 이동과 연결-가리봉의 초지방적 도시화 (5) 북-중-러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건설과 초국경 이동과 흐름의 변화 (6) 북-중-러 국경도시에서의 인구이동과 도시경관의 변화: 훈춘을 중심으로 (7) 북-중-러 접경지역에서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동과 흐름 (8) 한국 일본의 대동북 3성 해외직접투자(FDI)의 변화 양상 연구 등이다.

네트워크 기반구축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에서는 국내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먼저 연구를 수행한 연구팀 및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 경험들을 배우고 향후 학문적인 교류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4년 12월 22일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전남대 BK21+ 글로벌 디아스포라 창의인재양성사업팀,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컨텐츠연구센터 등과 함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4년 5월 19일에는 인천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충남개발연구원 등 관련 정책연구원 사람들과도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정현주 교수,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손정원 교수,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이정운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 사회학과의 Mike Douglass 교수, 중국 길림대학 사회학과의 진봉 교수 등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공동 연구의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 시 현지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공동의 세미나 혹은 좌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학술연구활동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은 연구 첫 해인 2014년에는 기본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 성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체 연구팀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세미나 모임을 두 차례 개최했다. 5회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Peter Adey, David Bissell, Kevin Hannam, Peter Merriman and Mimi Sheller, The Routledge Handbook of Mobilities(2014)를 함께 읽었으며, 2014년 11월에는 Xiangming Chen, As borders bend : transnational spaces on the Pacific rim(2005)를 같이 읽고 토론하였다.

사람들



디렉터: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정근식(사회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김종철(아시아연구소)

신혜선(아시아연구소)

최종호(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김민환(아시아연구소)

이 프로그램에서는 공간적인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시아적 환경관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이용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ELD(Economics of Land Degradation) 국제연구 및 협력네트워크 하에서 아시아 5개 지역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생태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복잡계지표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동아시아적 환경사상으로서의 풍수사상의 현대적 재발견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연구기반구축

이 연구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목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 지속가능토지이용센터'의 설립이다. 이 목표를 위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국제기구들에서 제공하는 환경관련 정보들을 수집·관리하는 공간환경정보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연구재원의 확보와 국제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UNCCD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토지황폐화 경제성 평가(Economics of Land Degradation, ELD) 연구에 아시아지역 연구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현장연구를 위해서는 중국화남지방(온대지역, 산지), 몽골(건조지역), 한반도(온대지역), 북한 지역(황폐화된 지역), 그리고 매콩강 유역(열대지역)의 5개 사회생태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연구를 직접 진행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공간정보 시스템과 사례연구들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다행위자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통해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될 계획이다. 보다 이론적인 학문발전을 위해서는 '복잡계지표시스템연구회'와 '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진행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아시아적 공통가치를 발굴하는 작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구축

환경협력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은 2011년 창원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최초의 UN총회였던 UNCCD 제10차 총회의 '창원이니셔티브'와 그 후속사업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주관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계기로 UNCCD와 ELD initiative, 그리고 기타 관련 국제기구(World Bank, EU, CIAT, UNEP 등) 등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연구를 통해 몽골과 라오스, 중국 운남성에서 각각 연구 파트너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국제 교류 네트워크는 국내의 관련 정부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토지이용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복잡계지표시스템연구회'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아시아적 시각을 확립하기 위해 '동아시아풍수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술연구활동

주요 학술활동 성과물은 (1) 아시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2) 토지이용 영향평가를 위한 다행위자 시스템, (3) 5개의 사례지역(중국, 몽골, 라오스, 북한, 한국)에 대한 공간정보 수집 및 현장 조사, (4) 복잡계지표시스템연구회 구축 및 활동, (5)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 구축 및 활동 등으로 요약된다. 2014~2015년 기간 동안 환경협력 프로그램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한 5명의 석사과정생이 국내외 사례연구 지역에서 학위논문을 완성하였으며, 6회에 걸친 워크숍과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57편에 달한다. 2편의 논문이 주요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학위 논문에 담긴 내용은 이후 순차적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현재 2권의 단행본(《아시아 공통가치로서의 풍수: 융합학문적 성격과 현대적 활용》, 《한국풍수의 현재와 미래》)를 출판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환경협력 프로그램

아시아 지속가능 토지이용센터 지향

사람들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이도원(환경대학원)

강신규(강원대 환경과학과)

최원석(경상대)

Khongor Tsogt(대만 국립대)

외부 연구 지원사업

아시아연구소는 적극적인 외부 연구 지원사업 참여로 연구 역량 강화 및 학술적 기여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 현재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으로부터 6건의 연구 과제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10년 9월부터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단을 출범한 이후 연구과제를 수행해왔으며, 2013년 9월부터 2단계 연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신흥지역 연구 사업이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2단계 사업에 진입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 중이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역 정보 및 지식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연구재단의 토대연구 과제사업 1건과,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 중국협력사업 신규과제 1건에 새로 선정되었고, 기존 소형 과제에서 승격한 SSK 중형 과제 2건에 대한 연구단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내 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소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시아연구소의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은 동아시아의 경제와 사회의 협력과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주제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1단계(2010~2013년)에서는 연구책임자 임현진(아시아연구소 초대소장) 교수를 포함한 서울대 사회대 교수 8명과 전임연구인력 4명이 3년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분야에서 아시아적 특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경제공동체 건설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에 매진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이라는 특정 분야가 아닌 정치, 사회,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보고, 경제적 성과에 작용하는 비경제적 요인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한 것은 연구 성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1단계 연구활동 중에는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동아시아 대중문화 소비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2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2013년 9월부터 2단계 연구가 시작되었다. 2단계부터는 현 아시아연구소장인 강명구 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었으며, 7명의 공동연구원, 3명의 전임 연구인력이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및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 수행했던 연구 주제를 넓혀 동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1 세부과제팀과 동아시아의 사회·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2 세부과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은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강연 등과 함께 연구단 구성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중점연구소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내 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소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여 대학 내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시아연구소의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은 동아시아의 경제와 사회의 협력과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주제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아시아연구소의 주제 프로그램인 <동아시아 초국경 이동과 흐름> 연구팀과 워크숍, 세미나, 현지조사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협동연구를 통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초국경적(Transnational)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영역의 교류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동아시아 역내 국가 및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치경제 이념의 질서 및 공동의 발전 모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14년 중점연구소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세계 속의 아시아 연구 시리즈 제8권' <산동에서 떠오르는 동아시아를 보다(정근식, 신혜선 편)>를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과거 역사의 변방이었던 중국 산둥 지역이 황해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 지역을 연구답사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중점연구소 참여연구원(정근식, 박수진, 신혜선)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등 전문가 11명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글은 산둥반도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산둥 지역의 실상을 전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상세한 이론적인 배경과 함께 답사과정에서 채록된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내용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하게 다가갈 것이다.

사람들

연구책임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아시아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김재영(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정근식(사회학과)

전임연구원: 김유미(아시아연구소), 신혜선(아시아연구소), 최충호(아시아연구소)



'별에서 온 그대'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는 강명구 소장(2014. 5. 23)



'별에서 온 그대' 열풍으로 본 중국사회의 이해' 컨퍼런스 후 기념촬영(2014. 5. 23)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라는 틀에서 동아시아 도시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연구의 새로운 인식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동아시아 도시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 1950년대 이후 냉전 지정-지경학적 상황과 1950~1980년대 동아시아 각국에서 팽배했던 발전주의적 국가개발이 동아시아 도시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2)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지정-지경학적 조건 속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발전주의 도시화의 유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도시화의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압축성, 예외성, 위험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도시화의 특성을 정의하고, 각 요소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특히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도시화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압축성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에서 1960년대 이후 시공간적으로 압축된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 특히 신도시 개발과 같은 '도시 메가 프로젝트'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예외성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국가의 영토 내에서 자본축적과 국가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지정학적 논리에 의해 차별적으로 영역화된 '예외적 공간'이 출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특구'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압축적 도시화와 국토공간 건설의 결과로 인한 위험경관(riskscape)의 등장에 주목해서 원자력 의존적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난 '핵 발전의 위험경관'을 분석한다.

동아시아 도시 연구단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출판물을 계획하고 있다.

영문 편서

<(Re-)locating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in their Transnational and Local Contexts>

<(Geo-)political Economies and Developmental Urbanism in East Asia>

이 두 권의 책에서는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초국가적-도시적-지방적 맥락 속에서 동아시아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국문 편서

<강남만들기(Ganamization)와 헤게모니적 도시 이데올로기의 사회-공간적 형성>

한국 자본주의와 발전주의 국가의 안정화·유지·재생산에 기여한 헤게모니 프로젝트이자 물질적으로 상징화된 심상 공간의 메커니즘으로 강남을 연구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예외 공간: 경제특구>

경제특구의 형성-변화과정에서 동아시아 도시성을 규정하는 '예외성의 성격'이 어떻게 지속-변화되는지를 세 가지(발전주의-신자유주의-체제전환형) 모델로 제시해 본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핵발전 의존적 도시화와 위험경관의 공간 정치경제학>

동아시아 발전국가 주도의 압축적 순환방식에 의존하는 '위험도시'의 형성의 역사-일지의 메커니즘-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공간: 반영토의 정치 기획과 '날 것'인 공간>

공공공간에서 권력이 재현되면 그렇게 재현된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감해서 신체와 행위를 규율하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동아시아 도시에 초점을 두어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시'라는 공간적 스케일을 중심으로 다학제와 다중 스케일의 횡단적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발전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 개발을 지향한다. 동아시아 도시를 보는 창(proxy)으로써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라는 틀을 설정해서 현재 동아시아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4년 9월부터 시작한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의 학술행사는 현재까지 두 차례의 연구단 콜로키엄과 한 차례의 합동세미나가 있었다. 1차 콜로키엄은 2014년 12월 3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짐 글래스만(Jim Glassman) 교수가 'Drums of War, Drums of (Mal) Development: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in the Vietnam War Era'라는 주제로, 베트남 전쟁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2014년 12월 17일에 열린 2차 콜로키엄에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 교수를 초청해 '발전주의 도시성의 탐색: 법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발표를 들었다. 이 발표는 다양한 도시권(right to the city) 논의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주제를 발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5년 1월 20일에는 한국공간환경학회와의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한신대학교 정조교양학부 이상현 교수(핵발전과 한국의 위험경관)와 성신여대 김종근 교수(식민도시 경성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발표를 통해 연구단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었다.

사람들

디렉터: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장세훈(동아대 사회학과)

이상현(한신대 정조교양대학)

지주형(경남대 사회학과)

이승욱(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과)

Hyun bang, Shin(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Geography and Environment)

Hae Laam(York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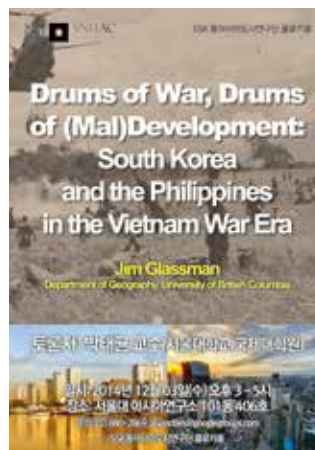
Jinn-yuh Hsu(Department of Geography, National Taiwan University)

Asato Saito(Institute of Urban Innovation,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전임연구원: 김동완(아시아연구소)

김은혜(아시아연구소)



1차 콜로키엄 포스터



2차 콜로키엄 포스터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제명: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책임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공동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김재영(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정근식(사회학과)

전임연구원: 신혜선, 최종호, 김유미

연구 단계: 2단계 2차년도(2014. 9~2015. 8)

총 연구비: 250,989,000원

신흥지역 연구 사업

과제명: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오명석(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형준(강원대), 유창조(동국대), 이응철(덕성여대)

전임연구원: 최경희, 정범모, 엄은희, 이수현

연구 단계: 2단계 3차년도(2014. 9~2015. 8)

총 연구비: 243,682,000원

SSK(Social Science Korea) 사업

과제명: 국제무역, 통상질서 그리고 표준화

연구책임자: 박지형(경제학부)

공동연구원: 안덕근(국제대학원), 이지홍(경제학부), 이석배(경제학부)

전임연구원: 김민정

연구 단계: 중형 1차년도(2014. 9~2015. 8)

총 연구비: 112,600,000원

과제명: 세계화 시대, 동아시아 도시의 위기와 전환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이승욱(카이스트), 장세훈(동아대), 지주형(경남대),

이상현(한신대), Hae Laam(York University),

Hyun bang, Shin(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Jinn-yuh Hsu(National Taiwan University),

Asato Saito(Yokohama National University),

Jim Glassman(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전임연구원: 김동완, 김은혜

연구 단계: 중형 1차년도(2014. 9~2015. 8)

총 연구비: 229,900,000원

토대 연구

과제명: 현지조사를 통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전통생활문화 총서 및 DB 구축

연구책임자: 강정원(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고가영(아시아연구소), 정형호(전북대)

전임연구원: 양승조, 남영호

연구 단계: 1차년도(2014. 9~2015. 8)

총 연구비: 196,945,000원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 중국협력사업

과제명: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홍중(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김석호(사회학과), 주윤정(아시아연구소), Jin jianbin(Tsinghua University),

Chu yajie(Tsinghua University)

연구 단계: 1차년도(2014. 10~2015. 9)

총 연구비: 80,000,000원

일반 연구 지원사업

과제명: 협동조합의 정치경제: 연대와 효율의 혼종성(混種性·Hybridity)에
대한 학제적 연구

연구책임자: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권현익(인류학과), Miura Hiroki(경희대), 한신갑(사회학과)

연구 단계: 2차년도(2014. 9~2015. 8)

총 연구비: 94,200,000원

과제명: 매공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연구책임자: 윤순진(환경대학원)

공동연구원: 이승호(고려대), 이상국(연세대), 이준표(한국기법법무협회),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요한

연구 단계: 1차년도(2014. 12~2015. 11)

총 연구비: 100,000,000원

*총 연구비는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응자금을 포함한 금액임.



학술행사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강연, 워크숍, 콜로키엄, 국내외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과를 공유할 뿐 아니라,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 학술행사 인명 표기는 직함을 제외한 성명, 소속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는 학과명을 표기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아시아연구소로 표기한다.
단, 아시아연구소 내부 행사의 경우 소속 연구단위 명을 표기하였다.

humanities and cultural studies) with a focus on China, Japan and Korea can be found under the umbrella of the university-wide Center for Area Studies (see also above). A similar Center for Area Studies (but with no particularly strong Asia component) has also been set up by Leipzig University (www.uni-leipzig.de/~area/)

2) Setting up new or strengthening existing broader array of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research and teaching on individual Asian sub-regions/countries, e.g. new centers on China and India at Göttingen University / interdisciplinary Centre for East Asian Studies (China, Japan, Korea, Southeast Asia) set up in 2008 at Frankfurt University, and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Faculty of East Asian Studies (China, Japan, Korea) at Bochum University



아시아연구소



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아시아연구소는 연구소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2014년 3월 20일과 21일,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를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12개국에서 아시아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20개 주요 아시아연구기관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전 세계 아시아 주요연구소 소장 및 아시아연구 전문가들이 아시아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아시아연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자: 2014년 3월 20일(목)~21일(금)

장소: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IS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이스탄불문화원 공동주최 콜로키엄

2014년 11월 14일(금)에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이스탄불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콜로키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콜로키엄은 한국이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로 서방의 시각에서 생산된 자료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지식을 생산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 IS(Islamic State)를 중심으로 중동문제를 조망하였다. 이번 콜로키엄에는 시의적 적절성과 한국에서 중동문제라는 주제의 희소성으로 인해 지역전문가를 비롯하여 기존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연구자와 실무자, 한국인과 외국인의 관점을 모두 포괄한 이번 콜로키엄은 IS와 중동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발표: 이사아파잔(Isa Afacan, 터키 Turgut Özal University),
박현도(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이슬람학),
압둘 와합(국내 최초 시리아 유학생, 동국대 법학과 박사과정)

일자: 2014년 11월 14일(금) 14:00~17:00

장소: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소 연합학술회의

2014년 12월 9일(화)에는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란 제목으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를 수행하는 아시아연구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아시아연구소는 전공과 연구 영역이 다른 다수의 연구자들이 '아시아란 공통점'을 매개로 모여있는 곳이다. 다양한 지역과 주제를 다루는 연구소인만큼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연구 주제를 공유하는 자리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한 첫번째 기획으로, 연합학술대회에는 동북아센터, 동남아센터 등 지역 연구센터와 위험관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시민사회, 아시아엔서스 등의 주제 연구 프로그램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일자: 2014년 12월 9일(화) 13:00~18:00

장소: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아시아 자본주의 워크숍

2015년 1월 30일(금)에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아시아 자본주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 일본, 중국의 자본주의와 아시아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주제들을 다루면서 한국의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자본주의의 연구 현황과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하는 시도였다. 특히 앞으로 아시아 자본주의 연구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아시아 자본주의 연구에 대한 학문적 정리와 아시아 내 여러 국가 간의 자본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 나아가 아시아 자본주의와 유럽 자본주의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사회: 황석만(창원대)

발표: 장하성(고려대), 이종구(성공회대), 백승욱(중앙대), 김형기(경북대),
권형기(서울대)

일자: 2015년 1월 30일(금) 14:00~17:00

장소: 아시아연구소 303호

동북아시아센터

소수자와 사회적 배제로 본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과 대만

동북아시아센터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공동으로 2014년 11월 14~15일, '소수자와 사회적 배제로 본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과 대만'이란 제목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 20명의 한국, 일본, 대만의 학자들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대만에서의 하층민이나 소수자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에 머무르던 것에서 벗어나 서로를 비교, 대조해보는 자리였다. 기존의 제국사와 식민지 연구가 위로부터의 연구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연구를 시도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들 비교를 통해 제국과 식민의 동학을 역동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중/일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대만과 한국, 일본에서 각각 이루어진 보건, 장애, 빈곤, 일탈, 범죄,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측면의 식민지기 소수자 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내용은 2015년에 대만과 한국에서 각각 중국어와 한국어로 출판될 예정이다.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서울대 사회학과

일자: 2014년 11월 14일(금)~15일(토)

장소: 아시아연구소 504호

동남아시아센터



Rethink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Mekong :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Mega-development and ODA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에서는 2014년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한신대 지역발전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와 공동으로 '메콩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고(Rethink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Mekong)'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기존의 동남아시아 연구가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던 것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국제하천이자 지역차원의 공공재인 메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메콩지역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는 점과, 양자관계를 넘어서 다자관계에 기초한 한-메콩유역국들 사이의 국제개발협력의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행사는 동남아시아센터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지난 2년간의 메콩지역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동남아시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과제의 지원을 받아 향후에도 메콩연구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발표: Jim Glassman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장현식(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전 KOICA 이사) 외 13명

일자: 2014년 12월 4일(목)~5일(금)

장소: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중앙아시아센터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의 대응

중앙아시아센터는 2014년 11월 21일, 출범 이후 첫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아시아연구센터와 한국유라시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신범식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센터장)의 개회사와 서창우 대표고문(한국유라시아학회 대표고문)의 축사로 시작된 학술대회에서는 '중러 관계의 기원과 현재, 미래',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의 대응'이라는 분과주제 아래 다양한 세부 주제에 따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이 두 강국의 국내외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앙아시아의 대응 양상을 역사와 현황, 국가별 대응, 관련 주요 이슈들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일자: 2014년 11월 21일(금) 10:00~18:10

장소: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대중문화 프로그램



동아시아의 상상계, 전통, 그리고 포스트모더니티(Imaginary, traditions and postmodernity of East Asia)

2014년 6월 17일에는 문화사회학 분야의 해외석학인 Tacussel 교수를 초청하여 동아시아의 문화적 지형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사회적 상상계란 개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후기 근대사회의 특징을 논의한 연사는 동아시아는 유럽 사회가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겪었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 등에서 비롯된 근대성의 폐해를 그만큼 강력하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상상계를 잃지 않으면서 포스트모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 사회가 경험했던 근대성에 대한 논의, 유럽사회와 비서구권사회와의 비교문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 Tacussel, Patrick(폴 발레리 몽펠리에 3대학 사회학과 교수)

일자: 2014년 6월 17일(화) 15:00~17:00

장소: 아시아연구소 406호

미-중관계 프로그램



제3차 미중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한-일 대화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일본 동경대학교 대안정책연구소(PARI)와 함께 2014년 11월 22일 국제 학술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일본의 미-중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에서 바라본 미-중관계에 대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미-중관계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최: 미-중관계 프로그램, 동경대 대안정책연구소

일자: 2014년 11월 22일(토)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내 SK 게스트하우스 Rose Room

후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대한민국 외교부 동북아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총회 및 포럼(Global Social Economy Forum)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2014년 11월 19일,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총회 및 포럼(GSEF)에 참여하여 이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본 행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설립을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로, 본 프로그램의 업적과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 프로젝트의 중간단계 연구 성과를 관련 전문가 및 대중에게 공개하고, 연구내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는 한·중·일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해냄으로써 오늘날 동아시아적 사회적 경제의 특이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적인 사회적 경제의 특성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기획이기도 하다.

발표: 김의영(서울대), 미우라 히로키(경희대)

일자: 2014년 11월 19일(수) 9:00~12:30

장소: 서울시 신청사 대회의실 3층

시민사회 프로그램



한국 개발 NGO의 개발 파트너십 동향과 도전과제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올해 주요 사업 내용 중 하나인 아시아의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시작 단계로 한국 시민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주제 중 하나인 개발 NGO의 역사와 현황,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000년대 이전의 NGO는 정부 주도 사업의 보완적 의미의 행위자(complementary actor)로만 인식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독립적 개발 주체로 개발 NGO가 인식되고 개발 협력과 원조를 수행할 주요 행위자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한국의 개발 NGO들은 늘어나는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 개발 NGO 활동가의 양성 및 전문성, 그리고 역량 강화, 정부와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등의 향후 과제들을 안고 있다.

발표: 손혁상(경희대 공공대학원)

일자: 2014년 6월 5일(목) 10:00~12:00

장소: 아시아연구소 406호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SSK International Workshop on Asia and World Trade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은 SSK 국제경제질서팀과 공동으로 아시아와 국제 교역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Eric Bond의 'Tariff Overhang: Theory and Evidence', Ian Wooton의 'FDI, Trade Costs and Regional Asymmetries', Jota Ishikawa의 'Trade Liberalization and Aftermarket Services for Imports', 박지형 교수의 'Pre-trial Settlement with Imperfect Private Signals' 등의 발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를 통해 국제 경제질서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논의를 진행했다.

일자: 2014년 6월 27일(금) 8:00~16:00

장소: 아시아연구소 303호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

아시아는 통한다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는 통한다'를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엄은 조선일보에 연재된 특집 기사의 주제들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콜로키엄은 이재철 교수의 '덜 행복한 아시아', 김청택 교수의 '아시아의 창조성', 은기수 교수의 '아시아 국가 내에서의 국제인구이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2차 콜로키엄은 박수진 교수의 '아시아의 환경위험', 박원호 교수의 '아시아 국제조약의 네트워크', 김홍중 교수의 '서바이벌, 생존주의, 청년세대-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의했다. 3차 콜로키엄에서는 임현진 교수의 '아시아는 통한다', 강명구 교수의 '문화의 멜팅팟 중국', 이근 교수의 '아시아 국가들의 추격, 추월, 추락을 논의했다.

일자: 2014년 11월 4일(1차), 11월 18일(2차), 12월 2일(3차)

장소: 아시아연구소 240호(1차), 303호(2,3차)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이동과 흐름을 통해 본 동아시아 2014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에서는 2014년 12월 22일(월), '이동과 흐름을 통해 본 동아시아 2014'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초국경 이동과 흐름에 연구경험의 공유와 학문적 교류의 모색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써 조선족, 환동해, 디아스포라, 해양도시연구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초청, 그동안의 연구경험을 공유하여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의 학술교류와 연구사업 전개에 관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이번 워크숍은 발표와 질의응답,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임영상(한국외국어대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장) 교수, 권세은(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장) 교수, 지충남(전남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창의인재 양성사업팀 연구교수) 교수, 우양호(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양문화연구실장) 교수, 박배균(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교류부장)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일시: 2014년 12월 22일(월) 13:00~18:00

장소: 아시아연구소 303호

환경협력 프로그램



인간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경관 : 사회와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함의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2014년 6월 20일(금), ELD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수진 교수의 '아시아 지표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대안'이라는 발표를 시작으로 워크숍의 문을 열었다. 자연경관이 결국 인간의 토지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사회와 자연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방향이 워크숍의 발표와 토의의 중심이었다. 다양한 발표자의 관점과 스케일로 토양, 하천지형, 농업활동부터 북한,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의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등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1부 지표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2부 아시아의 변형된 지표시스템을 주제로 총 8팀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3부에서는 종합토론으로 발표자들과 참여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 박수진(서울대), 변종민(고려대), 백경록(고려대), 유경수(University of Minnesota)

일시: 2014년 6월 20일(금) 14:30~18:30

장소: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107호

대학중점연구소



〈별에서 온 그대〉 열풍으로 본 중국사회의 이해

2014년 5월 23일에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계기로 중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드라마의 인기 요인과 중국 문화 산업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행사 당일에는 한국의 미디어 관계자나 연구자, 학생들도 대거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발표: Li Shengli(중국 전매대학 연극영상학부), Xiao Jie(북경방송국 드라마센터 마케팅부 주간), 정태상(CJ E&M China 드라마본부 책임프로듀서)

토론: 장태유(〈별에서 온 그대〉감독), 박지은(〈별에서 온 그대〉작가) 배국남(대중문화평론가)

일시: 2014년 5월 23일(금) 14:00~17:00

장소: 아시아연구소 303호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Drums of War, Drums of (Mal)Development: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in the Vietnam War Era

2014년 12월 3일 아시아연구소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에서 개최한 콜로키움에서 짐 글래스만 교수는 1960년 당시 남한의 네 배에 달했던 필리핀의 제조업 생산량이 1980년 경에 이르면 그 상태가 역전되어 오히려 남한 제조업 생산량이 필리핀의 두 배 정도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남한의 발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그것의 '성과물'로 평가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 양상에 착안하여 짐 글래스만 교수는 그와 같은 평가에 대해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미국에서 진행한 지난 6년간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강해지고 있는데, 다수의 한국 학자들 또한 한국 발전국가의 그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 전쟁이 남한과 필리핀 양국에 끼친 대조적인 영향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쟁의 지정학이 남한 발전주의 성장 동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이 콜로키움은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필리핀 사회,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주의적 양상을 고찰하는데 큰 통찰을 주었다.

발표: Jim Glassman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일시: 2014년 12월 3일(수) 15:00~17:00

장소: 아시아연구소 406호

학술행사 일람

3/6 대중문화 프로그램 〈글로벌기업〉 2013년도 중국 대학생 취업, 생활 및 가치관 추적조사 Li chunling(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irector of Research Office of youth and social problems, China)	3/24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1) 아시아의 인구변화와 복지문제 이상협(Center for Korean Studies, U. of Hawaii)	4/11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소양안의 냉전과 탈냉전: 금문과 하문의 분단과 교류 정근식(사회학과) 박배균(지리교육과) 이정만(지리학과) 이정훈(중어중문학과) 김민환(아시아연구소) 오준방(서울대) 김 란(서울대)	4/22 아시아연구소 / 인문학연구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통일평화연구원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 세계선도 연구소 육성방안 공청회 박명규(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김인걸(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백중현(인문학연구원 원장) 강명규(아시아연구소 소장)
3/20~21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Asia Research Directors Conference Prasenjit Duara(Director,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 of Singapore) 강명규(아시아연구소 소장) 박철희(일본연구소 소장) 이종화(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정재호(아시아연구소 미-중 관계 프로그램) Philippe Peycam(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Leiden U.) Koichi Iwabuchi(Director, Monash Asia Institute, Monash U.) 아내영(고려대) Zhipan Wu(Executive Vice President, Peking U.) Sergei Sevastianov(Director, Asia Pacific International Institutions & Multilateral Cooperation Studies Center, Far Eastern Federal U.) 이근(경제추적연구소 소장) Patrick Köllner(Director, Institute of Asian Studies, 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U. of Hamburg) Nasrudin MD Akhir(Executive Director, Asia-Europe Institute, Head of Malaysia-Korea Research Center, U. of Malaya) David Hugh Whittaker(Director, New Zealand Asia Institute, U. of Auckland) Hitoshi Nakano(Director,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 Srikanth Kondapalli(Chairperson,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Jawaharlal Nehru U.) 박장식(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장) Kevin O' Brien(Director,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C Berkeley) Gi-Wook Shin(Direct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 Shigeto Sonoda(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U. of Tokyo)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Xiangyang Li(Director,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한석정(동아대 부총장)	3/28 대중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중국 청년세대의 불안과 반근 조문영(연세대)	4/1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4) Assessing China's Military Power: A comparison with the U.S. Capabilities Andrew Erickson(Naval War College, USA)	4/23 중앙아시아센터 〈글로벌기업〉(1)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의 대응 시리즈 Yevgeny Hong(아시아연구소) 조영관(강원발전연구원)
4/4 동남아시아센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한인기업 사례연구 발표회: 현지화 전략의 사회문화적 함의 오명석(인류학과) 강윤희(인류학과) 최서연(아시아연구소) 전재성(전북대)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조윤미(덕성여대)	4/8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2)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발전요인, 발전 단계, 그리고 체제성격을 중심으로 민기채(서울대)	4/15 동북아시아센터 〈전문가초청 대중강연〉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의 봉기들 George Katsifas(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4/24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5) US-China (Nuclear) Deterrence: Shifting Landscape? Toby Dalton(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4/10 대중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세대의 정치적 슬로, 세대화- 사회 문제의 부호변환 전상진(서강대)	4/18 한국환경사회학회 / 동남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에너지 민주주의, 그리고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박진희(동국대) 홍덕화(서울대) 이영희(가톨릭대)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연주(국토환경연구소) 이유진(환경대학원)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수연(아시아연구소) 장예림(아시아연구소) 김고운(아시아연구소)	4/18 한국환경사회학회 / 동남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에너지 민주주의, 그리고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박진희(동국대) 홍덕화(서울대) 이영희(가톨릭대)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연주(국토환경연구소) 이유진(환경대학원)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수연(아시아연구소) 장예림(아시아연구소) 김고운(아시아연구소)	4/24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Globalization of the world and its consequences: Russian vision Igor I. Abylgaziev(Dean,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Moscow State U.)
		4/29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1) 한국의 노동문제: 해법의 구조적 한계와 개혁의 방향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5/1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6) US-China Relations Viewed from Taiwan Tse-kang Leng(대만중앙연구원)
		4/29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1) 한국의 노동문제: 해법의 구조적 한계와 개혁의 방향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5/2 동북아시아센터 〈전문가초청 대중강연〉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광주비엔날레의 정치학 이용우(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세계비엔날레 협회장)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Igor I. Abylgaziev(Dean,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Moscow State U.)

5/8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Benefit sharing in the Mekong River Basin
이승호(고려대)

5/13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Unity in Diversity: The hope and the struggle of opposites in pluralistic societies, Malaysia as a mirror
Shamsul AB(Institute of Ethnic Studies (KITA), U. Kebangsaan Malaysia)

5/16
중앙아시아센터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실크로드와 유라시아 시리즈 - 중앙아시아의 세 가지 구성요소 : 환경, 민족, 종교
이평래(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5/16
중점연구소 사업단 /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워크숍〉 문화클러스터와 개발국가: 중국 심천 OCT 디자인 클러스터를 사례로 동아시아 역내 국제물류 현안에 대한 이해
손정원(U. College London)
이정윤(부경대)

5/19
동북아시아센터
〈로키엄〉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치유
Maria Natividad P. Hernandez(Philippines, Medical Action Group)
Lucila Edelman(Equipo Argentino de Trabajo e Investigación Psicosocial EATIP)

5/20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독일의 학술연구체제와 학문후속 세대 양성방식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5/22~23
동남아시아센터 / KOTRA글로벌 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지역설명회- 제3기 인도네시아 편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윤여필(KOTRA)
김형준(강원대)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정재완(KIEP)
전제성(전북대)
조윤미(덕성여대)
김보상(한화)

5/23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 SSK 국제경제질서팀
〈세미나〉 Seminar on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Hierarchical Free Trade Agreements as Pairwise Stable Networks
허 정(서강대)

5/23
중점연구소 사업단
〈로키엄〉 〈별에서 온 그대〉 열풍으로 본 중국사회의 이해
Li shengli(Communication U. of China)
Shao jie(Beijing TV Station)
정태상(CJ E&M China)
장태유(별그대 감독)
박지은(별그대 작가)
배국남(대중문화평론가)

6/2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워크숍〉 Secondary Cities Unbound-From Corporate to People-Centered Transborder City Regions in Asia
Mike Douglass(Asia Research Institute and Department of Sociology, NUS)

6/3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7) Ares and Clio: History in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John Delury(연세대)

6/5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2) 한국 개발 NGO의 개발 파트너십 동향과 도전과제
손혁상(경희대)

6/10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Islamic Finance in Malaysia: Politics and policy Making
Jikon Lai(U. of Melbourne)

6/16~17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Exploring the Role of Informal Institutions for Economic Coordination in East Asia
Peter Ping Li(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
Shuanping Dai(Duisburg-Essen U., Germany)
Jarder Luo(Tsinghua U., China)
Markus Taube(Duisburg-Essen U., Germany)
이재열(서울대)
Martin Hemmert(Korea U., Korea)
김병연(서울대)
Sven Horak(St. John's U., USA)

6/17
대중문화 프로그램
〈로키엄〉 Imaginaire, traditions et postmodernité dans le monde est-asiatique
Tacussel, Patrick(Paul-Valéry Montpellier III)

6/19
대중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방황하는 청년들의 최전선: '평범함'에 대한 열정
정수남(서울대)

6/20
환경협력 프로그램 / ELD initiative
〈워크숍〉 인간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경관 (ELD 한국 워크숍)
박수진(지리학과)
변중민(고려대)
백경록(고려대)
유경수(U. of Minnesota)

6/21
환경협력 프로그램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국내학술회의〉 아시아 공통가치로서의 풍수: 융합학문적 성격과 현대적 활용
옥한석(강원대)
이형윤(원광디지털대)
권선정(충남대)
김혜정(대전대)
최광용(제주대)
박수진(지리학과)
최원석(경상대)
조인철(원광디지털대)
천인호(동방대학원대)

6/27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SSK International Workshop on Asia and World Trade
Eric Bond(Vanderbilt U.)
Ian Wooton(Strathclyde Business School)
Jota Ishikawa(Hitotsubashi U.)
박지형(경제학부)

7/2
로봇프로젝트 연구팀
〈전문가 초청세미나〉 인도네시아 로봇에서의 KOICA 활동 ; 산림탄소사업을 중심으로 / 로봇 생태관광 마스터플랜 생산에 관하여
한기주(Eco Service Consulting)

7/3
중앙아시아센터
〈로키엄〉 (2)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의 대응 시리즈
양승조(아시아연구소)
김영식(강릉원주대)
현승수(한양대)

7/7
동북아시아센터
〈로키엄〉 현대 중국 사회정치 사상의 흐름(当代中国的社会政治思潮)
Xu Jilin(East China Normal U.)

7/9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3) Cultural Globalization-Influence of Korean wave in ASEAN
Wu Jiewei(Director,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eking U.)



Exploring the Role of Informal Institutions for Economic Coordination in East Asia



양승조(서울대), 김영식(강릉원주대), 현승수(한양대)

7/16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4)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된 단상
이지원(한림대)

7/21
룸복프로젝트 연구팀
〈전문가 초청세미나〉 인도네시아 개혁시기 룸복섬의 동향: 사족족의 전통과 지방사회 역량강화 움직임을 중심으로
조윤미(덕성여대)

7/22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Theory, Culture & Society Body & Society 편집자에게 듣는 저널논문 게재 워크숍
Mike Featherstone(Goldsmiths, U. of London)

7/22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Revisited
Mike Featherstone(Goldsmiths, U. of London)

7/23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5) 종교와 지구화: 지구화된 한국의 공공종교
조규현(Asia Research Institute, NUS)

7/30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English-Language Academic Publishing: What Editors Expect and Common Mistakes by Authors
Paul H. KRATOSKA(Publishing Director for NUS Press at the NUS)

8/6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6) Entrepreneurship and SMEs in Myanmar: Opportunities & Challenges
Nu Nu Lwin(Director, MBA Programme Professor, Myanmar)

8/11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러시아의 시각(Ukraine Crisis and Russia: A Russian Perspective)
Gleb A. Ivashentsov(Former Ambassador of Russian Federation to Republic of Korea(2005-2009))

8/19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엄〉 한국의 문화정책과 대중문화 콘텐츠(contents)의 생산의 조건 일시
이혜경(London King's College)
최정봉(NewYork U.)

8/2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세미나〉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Miura Hiroki(경희대)
김익영(정치외교학부)
임기홍(서울대)
손희정(서울대)
김형호(경희대)
윤태희(서울대)
이경수(서울대)
이상직(서울대)
연준한(서울대)

8/22
동남아시아센터
ODA in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Policies and Practices
Fr. Graziano Batistella(Scalabrini Migration Center)
Atty(Golda Myra R. Roma)
조영희(IOM MRTC)

8/25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특별강연〉 협동조합운동으로서의 대안대학: 대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도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8/26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세미나〉 Pre-trial Settlement with Imperfect Private Monitoring
Mostafa Beshkar(Indiana U.)

9/5
아시아센터 / 시민사회 프로그램
〈한-일 공동워크숍〉 Exploring Social Capital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Forming a Consortium of social Well-Being Research in Asia
Hiroo Harada(Senshu U.)

9/12
아시아연구소
〈인턴 2기 워크숍 시리즈〉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소 활동과 연구 프로그램의 현황
김종철(아시아연구소)

9/15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8) China's Strategic Rivalry with the U.S. in Southeast Asia
Li Mingjiang(Nanyang Technological U.)

9/16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3) 공적개발원조(ODA)와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참여: 현황과 과제
김성규(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팀)

9/24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엄〉 문화냉전과 일본 가리오아(GARIOA) 프로그램의 영화
Tsuchiy Yuka(Ehime U.)

9/24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엄〉(3)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의 대응 시리즈
박상남(한신대)
정재원(국민대)

9/25
아시아연구소
2014년 아시아연구소 박사학위논문상 시상식 및 발표회
이영진(전남대 호남연구원)
김인수(연세대 국학연구원)

9/26
아시아연구소
〈인턴 2기 워크숍 시리즈〉 동아시아 초국경 이동과 흐름
박배균(지리교육과)

10/2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경계의 섬 녹둔도
이지석(서울대 명예교수)

10/10
아시아연구소
〈인턴 2기 워크숍 시리즈〉 중앙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
신범식(정치외교학부)

10/14
아시아연구소
〈한국-터키 상호이해 연속세미나1〉 한국과 터키의 삼권 분리와 법치 현황
Hasan Hami Yildirim(24th Member of Turkish National Assembly)
부작현(19대 국회의원)

10/15
동남아시아센터
〈워크숍〉 동남아시아 신흥지역 소비문화 연구
유창조(동국대)
윤여필(KOTRA)

10/16
동남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의 법체계 및 기업입법 동향
이준표(한국외대)

10/21
동북아시아센터
Visual Politics and North Korea: Seeing is Believing
David Shim(U. of Groningen)

10/21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후쿠시마 이후의 한국 탈핵운동의 새로운 변화와 과제
김혜정(원자력안전위원회)



David Shim(U. of Groningen)



Hasan Hami Yildirim(24th Member of Turkish National Assembly), 부작현(19대 국회의원)

10/21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엄〉 데이터 큐레이션: K-Pol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원호(사회학과)
김대훈(KOSSDA)

10/24
아시아연구소
〈인턴 2기 워크숍 시리즈〉 아시아학 개론-말레이시아의 종족 관계: 부미뿌트라(원주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충돌과 타협
오명석(인류학과)

11/3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9) 이명박 정부 시기의 미-중관계: 한국의 시각
김태효(성균관대)

11/4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엄〉 (1) 아시아는 통한다
이재열(사회학과)
김정택(심리학과)
은기수(국제대학원)

11/6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엄〉 Storytelling and Communal Archive: Media Practices after 3.11 in Japan
Mitsukoshi Shin(U. of Tokyo)

11/7
아시아연구소
〈인턴 2기 워크숍 시리즈〉 아시아연구로 가는 길
정근식(사회학과)

11/14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엄〉 IS와 중동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Isa Afacan(Turgut Özal U., Turkey)
박현도(명지대)
Abdul Wahab(동국대)

11/14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세미나〉 A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and Regulations on FDI Incentive Programs
강문성(고려대)

11/14~15
동북아시아센터
〈국제학술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배제로 본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과 대만
Kato Shigeo(Waseda U.)
정준영(서울대)
Wen Hua Kuo(National Yangming U.)
Daxin Qiu (National Yang Ming U.)
주윤정 (서울대)
Zhengyuan Chen(Academia Sinica)
김종근(서강대)
예자숙(서울대)
Tingyu Shi(National Taiwan U.)
Qiu Hong Liang(Academia Sinica)
정병욱(고려대)
Mika Yamada(Nagoya City U.)
이종민(연세대)
Hongbin Xu(National Chung Hsing U.)
장용경(국사편찬위원회)
Qiyang Liu(Fujian Catholic U.)
소현숙(한양대)
Mengzhu Zhanag(National Chiao Tung U.)

11/18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엄〉 (2) 아시아는 통한다
박수진(지리학과)
박원호(사회학과)
김홍중(사회학과)

11/19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엄〉 English-Language Academic Publishing: What Editors Expect and Common Mistakes by Authors
Paul H. KRATOSKA(Publishing Director for NUS Press at the National U. of Singapore)

11/20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10) 20세기 전반기 영-미 금융 패권의 전이: 미-중 관계의 함의
박종희(정치외교학부)

11/21
중앙아시아센터 / 한국유라시아학회
〈국내학술회의〉 중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응
백준기(한신대)
김재관(전남대)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신범식(정치외교학부)
박상남(한신대)
윤익중(한림대)
현승수(통일연구원)
김영식(강릉원주대)
조영관(강원발전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김태연(아시아연구소)

11/24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7) Developing Critical Literacie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Critical Readings of Popular Culture'
Angel Lin(U. of Hong Kong)

11/24~28
아시아연구소
Asian Cultural Awareness: 2014 Indonesian Week - 오감으로 느끼는 인도네시아

11/25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8) 히로시마의 기억과 일본 평화주의담론의 성찰
김미경(Hiroshima U.)

11/28~29
시민사회 프로그램 / 제주대 SSK연구단
〈워크숍〉 제1회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워크숍- 지역개발 및 협력의 주체로서의 시민 사회 역할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자경(제주대)

12/2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엄〉 (3) 아시아는 통한다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강명구(언론정보학과)
이근(경제학부)

12/3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11) 21세기 미-중간 규범 충돌의 국제정치
김현준(고려대)

12/3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콜로키엄〉 (1) Drums of War, Drums of (Mal) Development: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in the Vietnam War Era
Jim Glassman(U. of British Columbia, Canada)

12/3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콜로키엄〉 국제규범과 지구시민사회
김한준(고려대)

12/4~5
동남아시아센터
〈국제학술회의〉 Rethink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Mekong: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Mega-development and ODA
Jim Glassman(U. of British Columbia, Canada)
Daovong Phonekeo(Ministry of Energy and Mines, Lao PDR)
Witoon Permpongsacharoen(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Thailand)
Senglong Youk(Fisheries Action Coalition Team, Cambodia)
Le Anh Tuan(Dragon Institute at Cantho U, Vietnam)
Voradeth Phonekeo(Mekong River Commission, Lao PDR)
Carl Middleton(Chulalongkorn U., Thailand)
이요한(아시아연구소)
Ame Trandem(International Rivers, Southeast Asia)
Toshiyuki Doi(Mekong Watch, Japan)
유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엄은희(아시아연구소)

12/4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세미나〉 Growth and Protection of Ideas in Closed and Open Economies
Edwin Lai(Hong Kong U. of Science and Technology)



Mitsukoshi Shin(U. of Tokyo)



Paul H. KRATOSKA(Publishing Director for NUS Press at the National U. of Singapore)

12/5-7
환경협력 프로그램 / CBCDC / UNU-IASS
〈워크숍〉Asian Geomancy workshop
이도원(환경계획학과)
옥한석(강원대)
최원석(경상대)
박찬열(산림과학원)
박수진(지리학과)
Pei Shengji(Center for Bio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Conservation)
Jiao Yuanmei(School of Tourism and Geography Science, Yunnan Normal U.)
Yang Linxin(Kunming Institute of Botan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2/9
아시아연구소
제1회 아시아연구소 연합학술회의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정근식(동북아센터)
박배균(동북아센터)
이정만(동북아센터)
박지형(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안덕근(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김의영(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공석기(시민사회 프로그램)
박원호(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
김창택(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

12/10
동남아시아센터
〈워크숍〉 동남아 신흥지역 소비문화 워크숍
시리즈
오명석(인류학과)
김형준(강원대)

12/10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12)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미국 인식: 미-중 관계에의 함의
안두환(정치외교학부)

12/10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후발성의 사회과학
하용출(U. of Washington)

12/12
아시아연구소
〈인턴 2기 워크숍 시리즈〉 국제적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과제
공석기(아시아연구소)

12/12
동북아시아센터
〈국제학술회의〉 Comparative research on the Cold War in Europe and Asia
정근식(서울대)
박정미(한양대)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Wilfried Loth(Kulturwissenschaftliche Institut Essen)
강성현(성공회대)
하지은(서울대)
Hakjae Kim(Freie U. Berlin)
Holger Nehring(U. of Stirling)
정영신(제주대)
이정은(성공회대)
김남섭(서울과기대)
Bernd Greiner(Hamburger Institut für Sozialforschung)
Axel Schildt(U. Hamburg)
김민환(아시아연구소)
이임하(방통대)

12/12-13
아시아연구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세미나〉 이주와 개발 국제 전문가 세미나
Mariko TOMIYAMA(IOM)
RodoraBABARAN(Socio-Cultural Cooperation ASEAN Secretariat)
조영희(IOM MRTC)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김성규(한양대)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이진영(인하대학)
하용국(법무부)
최혜은(고용노동부)

12/17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콜로키엄〉(2) 발전주의 도시성의 탐색: 법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도시에 대한 권리
이계수(건국대)

12/19
아시아연구소
〈인턴 2기 워크숍 시리즈〉 내가 해온 문화연구
강명구(언론정보학과)

12/22
중점연구소 사업단 /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워크숍〉 초국경 연구단 학술회의: 이동과 흐름을 통해 본 동아시아 2014
임영상(한국외대)
권세은(경희대)
지충남(BK21+ 글로벌 디아스포라 창의인재 양성 사업팀)
우양호(한국해양대)
박배균(지리교육과)

1/8
중앙아시아센터
〈워크숍〉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강정원(인류학과)
고가영(아시아연구소)
남영호(아시아연구소)
양승조(아시아연구소)

1/14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Anthropological Approach on Mekong Border Riverscape
Jakkrit Sangkhamanee(Chulalongkorn U, Thailand)

1/16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엄〉 The challenge of the contemporary: history, politics, knowledge
Lawrence Grossberg(U. of North Carolina)

1/20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 한국공간환경학회
〈세미나〉 개발전과 한국의 위험경관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상현(한신대)
김종근(성신여대)

1/20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삶의 터를 말한다 : 마을공동체 운동의 성찰과 과제
김성균(성결대)

1/21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브라운백 세미나〉 중국 동북지역의 인구인동과 도시공간의 변화: 장춘을 중심으로 - 장춘시의 도시발전과정, 장춘의 인구이동, 도시공간의 변화
Chen feng(Jilin U.)

1/23
아시아연구소
〈인턴 2기 워크숍 시리즈〉 동아시아의 평화 기념공원 형성과정: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환(아시아연구소)

1/26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The Crisis of Global Modernity Asian Traditions and a Sustainable Future
Prasenjit Duara(Director, Asia Research Institute, NUS)

1/26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나의 동아시아 배우기
서 승(Ritsumeikan U.)

1/26-2/6
동북아시아센터
〈사진전〉 텃밭, 한센병에 감사한 시인

1/27-28
환경협력 프로그램
〈워크숍〉 한국풍수의 현재와 미래
박수진(지리학과)
이도원(환경계획학과)
최원석(경상대)
박재택(영남대)
박정해(한양대)
옥한석(강원대)
이형윤(대구가톨릭대)
정경연(인하대)
조인철(원광디지털대)
한중구(청운대)
박찬열(산림과학원)

1/29
대중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제1회 '동아시아 창의청년 연구팀' 심포지엄(경희사이버대)
정 현(미술비평가, 전시기획자)

1/30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아시아 자본주의
장하성(고려대)
이종구(성공회대)
백승욱(중앙대)
김형기(경북대)
권형기(정치외교학부)

2/3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엄〉 한센인권운동과 시각문화
권 철(작가)
정근식(사회학과)
조영선(변호사)
주윤희(아시아연구소)



Lawrence Grossberg(U. of North Carolina)



Prasenjit Duara(Director, Asia Research Institute, NUS)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아시아연구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아시아 관련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아시아 관련 기초 연구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지식 생산 구조를 넘어서서 독자적인 지식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가고 있다.

아시아연구 기획과제 사업

- 이준구(한양대 경영대학) 외 | Mobile Asia: Evolving Mobile Telecom Value Chains and Emerging New Regionality
- 박지형(경제학부) 외 | 혁신·창조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
- 이정윤(부경대 국제통상학부) 외 | 동아시아 초국경 생산네트워크의 발전과 물류흐름의 변화
- 홍백의(사회복지학과) 외 | 아시아의 가족-아시아의 가족혁명은 과연 시작되었는가
- 정근식(사회학과) 외 | 아시아연구소 번역총서 *사업내용 하단에 표기
- 박배균(지리교육학과) 외 | 이동과 흐름으로 본 동아시아
- 김민환(아시아연구소) 외 | 동아시아 지역 월경적 네트워크 연구
-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외 | Asian Capitalisms
-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외 | 아시아의 음식문화
- 이재열(사회학과) 외 | 광복 70주년 국민의식조사
- 강정원(인류학과) 외 | 근대화와 사회문화
- 한규섭(언론정보학과) 외 | 아시아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신뢰
- 김종철(아시아연구소) 외 | 아시아 기업문화 국제 비교연구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외 | 동아시아의 난민: 수용과 배제
-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외 | 21세기 세계정치 경제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재구성
- 조영환(한국외국어대 한국학과) 외 | 옐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
- 김승룡(부산대 한문학과) 외 | 인문생성공간으로서의 北京宣南과 清朝지식인들
- 전재성(정치외교학부) 외 | In Search of a Theory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 임혁백(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외 | The Possibility of Peace in Korean Peninsula

아시아연구 번역총서 지원사업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저술된 대표적인 역사서의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되었으며, 2015년 총 5권의 아시아 지역 역사서가 번역될 예정이다. 아시아 각국에 대한 대표적인 역사교과서나 혹은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저작을 번역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Philippe Langlet et Quach Thanh Tam(2001). Introduction à l'histoire contemporaine du Viet Nam de la réunification au néocommunisme(1975~2001). Paris: Les Indes savantes
번역: 윤대영(서강대 동아연구소)
- Taylor-Jean(2003). Indonesia: People and Histo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번역: 여운경(아시아문화학부)
- 黃宗智 著(2010). 中國的隱性農業革命. 法律出版社
번역: 구범진(동양사학과)
- 曲曉范(2001). 近代東北城市的歷史變遷. 東北師範大學出版社
번역: 박 우(한성대)
- S.M. Dudaryonok·F.E. Azhimov(2013). History of Russian Far East. Vladivostok: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번역: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연구를 이끌어 갈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F Global e-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우수한 아시아 연구자 양성을 위한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과 박사논문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 포럼은 아시아 연구의 미래를 책임질 후속세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연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연구 참여를 꿈꾸는 후속 세대에게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인재양성사업

KF Global e-School Program

한국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아시아연구소는 2011년부터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 한국학 강의를 해외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를 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 한국학 강의를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실시간 화상강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찾기 위해 3개국 공동강의, Moving Class 등의 새로운 실험들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4년간 아시아와 유럽 8개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37개의 강좌를 개설했다.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의 핵심적 교육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및 국가 별 최우수 명문대학을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과 연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를 접목하고 결합하며 지속가능한 새로운 교육모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4년 아시아연구소의 e-School Program에 참여한 해외대학으로는 중국의 북경대, 청화대, 러시아의 고등경제대, 독일의 튀빙겐대, 베를린자유대, 프랑스의 파리7대학(디드로)과 이날과 및 베트남하노이 국립인문사회대와 서호주대가 있었다.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1년간 이들 대학의 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6명의 서울대 교수진이 참여, 정규학점이 부여되는 13개의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해외 현지대학에서 운영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한 e-School Program 참여자는 450여명에 이른다.

2014 e-School 강의 교수

- | | | | |
|---|-------------|---|-------------|
|  | 강명구(언론정보학과) |  | 김인걸(국사학과) |
|  | 김태균(국제대학원) |  | 박경숙(사회학과) |
|  | 박원호(정치외교학부) |  | 박태균(국제대학원) |
|  | 신범식(정치외교학부) |  | 은기수(국제대학원) |
|  | 이승훈(경제학부) |  | 임현진(사회학과) |
|  | 장덕진(사회학과) |  | 전재성(정치외교학부) |
|  | 정홍익(행정대학원) |  | 조은수(철학과) |
|  | 하용출(정치외교학부) |  | 홍석경(언론정보학과) |

清华大学新闻与传播学院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韩国企业文化
Korean Corporate Culture

主讲人: 朴根太 先生
Mr. Geon-Tae Park
韩国CJ集团中国区总裁
President & CEO, CJ Group China Roadshows

主讲人简介
朴根太先生是韩国著名的企业家,在韩中建交之前,他就开始了在中国的职业生涯,他现任CJ集团中国区总裁,曾任大宇中国总裁、中国韩国商会会长等职。朴先生毕业于韩国延世大学,曾荣获韩国政府“绿色勋章”,“自豪的韩国人”荣誉称号和“韩国总统表彰奖”(对国家发展有贡献的功劳奖)。CJ集团是一家全球化生活文化企业,其核心业务涵盖食品餐饮服务、生物科技、娱乐与传媒、新流通四大领域。

主办: 清华大学新闻与传播学院
首尔大学亚洲研究所
韩国国际交流财团

讲座时间: 2014年10月13日(周一)14:00
讲座地点: 新闻与传播学院环建资源厅

清华大学新闻与传播学院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韩中关系的现状与展望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主讲人: 权宁世 大使
Kwon Nyeong-se, Ambassador

主讲人简介
权宁世先生毕业于首尔大学法学系和哈佛大学肯尼迪政府学院行政学系,曾担任韩国法务部首尔地方检察厅、水原地方检察厅检察官,最高检察厅检查研究官和德国联邦司法部特派检察官。2002年、2004年、2008年三次当选为国会议员。2006年至2007年任大国家党最高委员。2008年任大国家党事务总长。2010年至2012年担任韩国国会情报委员会委员长。2011年至2012年担任大国家党、新国家党事务总长。2013年6月起开始担任大韩民国驻华大使。

主办: 清华大学新闻与传播学院
首尔大学亚洲研究所
韩国国际交流财团

讲座时间: 2014年10月20日(周一)14:00
讲座地点: 新闻与传播学院环建资源厅

清华大学新闻与传播学院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中韩影视的现在与未来
——“来自星星的你”与中国

主讲人: 张大雄 导演
Mr. Tae You Chang

主讲人简介
张大雄,韩国著名导演,毕业于首尔大学产业设计专业。1988年进入韩国SBS电视台担任电视制片人,指导了《钱的战争》《风之画员》《树大根深》《来自星星的你》等热门剧集。曾两次提名韩国电视界最高奖项百想艺术大赏TV部门最佳导演,作品《钱的战争》获第44届韩国百想艺术大赏电视类最佳作品,《树大根深》获韩国第48届百想艺术大赏TV部门最高大赏,《风之画员》获第43届休斯敦国际电影节银雷米奖。2013年播出的作品《来自星星的你》风靡亚洲,被认为是“中国拥有社交媒体以来最被热议的韩剧”。

主办: 清华大学新闻与传播学院
首尔大学亚洲研究所
韩国国际交流财团

讲座时间: 2014年12月1日(周一)13:00
讲座地点: 新闻与传播学院环建资源厅

“Our students not only got the information abou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they grasped the new knowledge about the important role that Republic of Korea is playing in the region and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 Prof. Olga Volosyuk, Higher School of Economics

“The whole course is interesting and thought-provoking. I've learned more about Korean society and culture. And the lectures delivered by Korean ambassador and CJ president impress me most.”

- Student, Tsinghua University

“Comparing my professors and classes before, I have to say that Prof. Lee is the best professor and I really enjoy his classes. His explanations and materials are really good.”

- Student, Universität Tübingen

※ 2014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Socio-Cultural Traditions of Korea(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 Russia)
Understanding Korean Society(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Korea-US Relations(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Contemporary Korean Society(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Australia)

가을 학기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Social Transformation in China and Korea(Peking University, China)
Cross-cultural Explorations in EastAsia(Tsinghua University, China)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Economic Development in EastAsia(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Theories and Research Methods for Korean Studies(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Series of Lectures: The State of the Art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on Korea in Korea(Université Paris Diderot, France &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France)

또한, e-School Program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3회에 걸친 해외 수강생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4개 대학 35명의 해외 학생들을 초청하였다. 국내에서 참여한 인원을 포함하면 연 인원 70여명이 참여하는 규모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강생들은 강의실을 넘어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통해 국내 학생들과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School Program은 앞으로도 아시아연구소 내의 다양한 학술, 교류행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해외 수강생들과 교류를 희망하는 국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규모 있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교류와 연계된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가 2단계 사업기간(2015-2017)을 통해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때, 아시아연구소는 2단계 사업기간을 통해 해외 수강생 초청 프로그램을 해외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체험과 경험을 통해 단기간 내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4년 봄학기 튜빙겐대: 박태균 교수



2014년 봄학기 하노이국립인사대/러시아 고등경제대 수강생 초청



2014년 가을학기 청화대 수강생 초청: KBS 방문 기념사진



2014년 가을학기 청화대-서울대 공동강의: 강명구 교수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 전국 대학생 포럼

아시아연구소는 2015년 1월 26~27일 이틀간 제2회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 전국 대학생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포럼은 아시아연구소의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포럼은 아시아 연구의 미래를 책임질 후속세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연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아시아 연구의 저변 확대와 질적 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생 포럼에는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전국의 인문사회계 석·박사과정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모든 주제(아시아 지역 연구, 아시아 지역 내 비교연구, 아시아 지역과 타 지역 비교연구,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학제 간 연구 등)가 가능하다. 참가 대학원생에게는 참가비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지방 거주자들에게는 숙박도 제공한다. 또한, 이수자 전원에게는 아시아연구소 명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번 제2회 전국 대학생 포럼에는 전국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30명과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및 아시아연구소 박사급 선임연구원 12명이 참여하였다.

첫째 날인 26일에는 아시아 지역연구에 대한 두 명의 해외 석학 특강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특강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아시아연구소(ARI) 소장인 프래신짓 두아라(Prasenjit Dura) 교수가 최근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 〈The Crisis of Global Modernity: Asian Traditions and a Sustainable Future〉에 대해 강의하고, 이에 대하여 조영한 교수(한국외국어대)와 김성준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大學) 대학의 서 승(徐勝) 교수가 ‘나의 동아시아 배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참가자들의 관심 있는 연구주제와 지역에 따라 다섯 개의 조로 구성하고, 조별로 2~3명의 선임연구원이 멘토가 되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Presentation and Clinic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이 준비해온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후 아시아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를 약속하는 수료식을 끝으로 포럼이 마무리되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대학원생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차세대 아시아 연구자들이 학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제2회서울대아시아연구소 전국 대학생 포럼 포스터



질문종인 포럼 참가 대학생생



서승 교수 특별강연 후 단체사진(2015. 1.26)

아시아연구 박사논문상

SNUAC 박사논문상은 아시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수한 학술적 성과를 거둔 박사 논문에 대해 우수 논문 1편당 500만 원의 상금 시상과 함께 수상 논문 출판 시 1편당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 신설되었다. 2014년 SNUAC 박사학위 논문 수상자는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6월부터 3개월간의 심사를 통해 최종 2명을 선정했다. 논문 심사는 아시아기초연구사업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제를 두 패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전문가 심사(1단계)와 내부적 종합평가회의(2단계)를 통한 2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심사 결과, 2014년도 수상자는 이영진 HK연구교수(전남대 호남학연구원)와 김인수 연구원(연세대 국학연구원)이 선정되었다. 이영진 박사의 논문은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역사인식의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과 기초연구로서 발굴된 사료의 사적 가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수 박사의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농정 입법과 소작을 둘러싼 인식 폭력의 문제, 지식 생산 양식이라는 분석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서 문제의식과 연구 시각의 독창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아시아연구소는 박사논문상 시상과 함께 수상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통해 신진 연구자들을 독려하고 상호 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 이영진(2012). 전후 일본의 특공 위령과 죽음의 정치.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인수(2013). 일제하 조선의 농정 입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국가론적 해석: 제국 지식체계의 이식과 변용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

우수한 아시아 연구자 양성을 위해 박사 논문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국내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아시아와 관련된 인문, 사회과학 분야 후속세대 양성 및 신진 아시아 연구자 육성을 통해 국내의 아시아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사업이다. 2014년에는 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이 중 4명이 박사학위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은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해 발표되었다.

- 송숙정(중앙대 일어일문학과) | 일제 강점기 일본의 국정독본과 조선, 대만의 일본어 교과서와의 비교연구
- 이중구(정치외교학부) | 탈냉전기 북한의 안보화 과정과 위협담론의 변화: 북핵1, 2차 위기를 중심으로
- 이현태(경제학부) | 중국의 소유제별 기업군이 경제성장에 미친 역할의 동적 변화
- 윤여일(사회학과) | 동아시아 담론과 대안적 동아시아 상에 관한 연구
- 지은숙(인류학과) | 가족주의 사회의 가족 없는 사람들: 비혼자의 부모돌봄을 통해 본 일본의 개인화와 가족 역할
- 차은정(인류학과) | 이산의 '고향'과 기억의 탈식민지화: 재조일본인 2세의 노스탤지어와 재현되는 조선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송숙정 박사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이현태 박사

연구인턴십

아시아연구소에서는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경험을 결합한 인턴제도인 연구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인턴십은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이 아시아 연구와 연관된 학계 및 사회의 우수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목표로 연구 및 행정 교육을 통한 기초 역량 증진, 인턴들 간의 협력을 통한 실무능력의 배양, 그리고 연구소 구성원들과 인턴들 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이 아시아연구 각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소규모 강의를 통하여 전수하고, 연구실무 및 연구행정의 기본과정을 교육하며, 진행 중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실무와 연구 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인턴십은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제1기 인턴 11명,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기 인턴 14명을 선발하여 운영했다.

연구인턴들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자의 특징적인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아시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고민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연구인턴 생활을 진행했다.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고, 연구소의 분과별 활동을 보조하며,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에 참가하는 한편, 서로의 생일을 챙기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시아에 관련된 주제로 답사를 나가면서 보다 돈독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프로그램도 지속했다.



2기 연구인턴 명단

오유경(서울대 환경대학원)	권노을(동국대 사회학과)
신선희(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	김시연(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임동하(서울대 지리교육과)	임인영(서울대 경제학부)
김경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안혜린(서울대 환경대학원)
한지명(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청아(한국외대 태국어과)
김덕현(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주도경(서울대 동양사학과)
이재희(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김예린(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동아리 활동

아시아연구소는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의 현실과 교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2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임 '아미고'



아미고는 다양한 아시아의 모습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지역별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 독서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아리이다. 아미고는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임'의 약자로, 2014년 1학기에는 중국을, 2학기에는 동남아시아를 주제 지역으로 선정해서 정기독서세미나 및 북토크, 아시아 대학생 교류, 자유주제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매주 열리는 정기독서세미나는 주제로 정한 지역에 관한 책이나 논문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열어놓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토크는 주제로 정한 지역 외에 다양한 아시아 관련 책을 읽고 저자를 초청해 직접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다. 방학 기간에는 지역과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평소 동아리 회원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과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정기세미나나 북토크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논의와 대화를 진행한다.

2014년에는 아시아연구소를 방문한 베트남 하노이대, 러시아 고등경제대, 중국 북경대(北京大), 중국 청화대(淸華大) 학생들과 교류하는 등 아시아의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협동의 촉진-생각의 공유와 새로운 현실에의 도달 'FICS'

FICS(Foundation of Intercultural Cooperation)는 사회연구 및 교류 동아리이다. '협동의 촉진-생각의 공유와 새로운 현실에의 도달(Sharing ideas and reaching new realization)'이라는 취지 아래 동경대에도 동명의 단체가 있어 서울대-동경대 간 교류를 하는 게 특징이다. 학기 중에는 각 단체가 개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매년 8월 이를 바탕으로 서울과 동경에서 1주일씩 총 2주간 양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4월 초부터 FICS SNU는 세 팀으로 나뉘어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정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동경대의 FICS UT와 온라인 회의를 통해 공유하여 양국 사회문제의 공통점을 찾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한일 양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 나라의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시각을 조심스럽게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름 세션을 이용하여 CT(Cultural Tour)라는 활동을 통해 한 문화가 어떻게 양국에서 다르게 향유되고 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라주쿠, 명동, 아사쿠사 등 양국의 특징 지역을 방문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장소를 실제로 방문하는 필드워크 시간을 갖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별기획사업

인도네시아 문화주간

아시아연구소는 2013년부터 'Asian Cultural Awareness Project'를 시작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4년 11월 24~28일 '오감으로 느끼는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문화주간(Indonesian Week)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3년에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였고, 특히 2014년은 한-아세안 외교수립 2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문화주간은 인도네시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전시, 북페어, 전통 춤 배우기, 영화제, 음식만들기, 강연, 학술제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오감으로 느끼는 인도네시아'라는 주제에 걸맞게 모든 감각으로 인도네시아를 경험하는 프로그램들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문화주간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특별전시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예술의 백미 보로부두르와 인도의 힌두문화 전파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고유의 미학과 자연관이 융합되어 아름답게 발전한 자바와 발리의 힌두사원들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가 아시아연구소 3층 공간을 활용하여 열린 것이다(기획: 서울대 건축사연구소,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추진단). 인도네시아의 대표 불교유적 보도부드의 수탑파를 재현한 모형과 사진, 영상 등이 아시아연구소 3층 공간을 가득 채웠다.

전통의상 전시, 북페어, 인도네시아 소개 자료 전시 등 상설 행사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문화주간은 11월 24일(월)에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진행된 전통 춤 배우기 프로그램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수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둘째 날인 25일(화)에는 인도네시아 전문 레스토랑의 셰프가 준비한 특별 점심 메뉴가 학교 구성원들을 만났고, 영화제와 함께 진행된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과 문학에

대한 특강으로 인도네시아의 '현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셋째 날인 26일(수)에는 인도네시아 전통 춤 공연과 인도네시아대사 초청강연으로 의미를 더했으며, 넷째 날인 27일(목)에는 학술제가 개최되어 인도네시아의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행사 마지막날인 28일(금)에는 인도네시아 요리교실, 발리 민족지 영화 감상과 특강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인도네시아 문화주간에는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유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평소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진 학내 구성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더불어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의 교류를 강화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자들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문화주간 특별전시 - 아시아연구소 3층



인도네시아 전통 발리춤 공연



Indonesian Banquet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정기 학술지인 <아시아리뷰>를 연 2회 발간하여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를 연구자 및 대중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발간하고 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출간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총서> 국문 시리즈와 영문 시리즈(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교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세계 속의 아시아 연구> 시리즈가 있으며, 이외에도 아시아연구소가 기획한 출판물들이 있다.

출판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4권 1호(통권 7호)

기조(基調) 발제문

인류세(人類世)에서 아시아 연구의 의제 | 프라센티 두아라 (싱가포르국립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초국경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 가지: 동아시아 해역의 새로운 상상 | 강영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언론정보학과)

기획논문

중국갑오전쟁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동학농민혁명과 청일 전쟁: 1894년 동북아시아전쟁의 개념화를 위하여 | 정근식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사회학과)

하와이 다문화에 한인 이민자들도 기여했을까?: 하와이 한인 이민사의 경험과 교훈, 1903~1959 | 이덕희(하와이 한인 이민연구소 소장)

한국 학계의 캄보디아·라오스 연구: 현황과 쟁점 | 정미경(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기고논문

한국과 일본 영유아 보육 제도 비교연구 | 강현구(서울대 아동가족학과)·이순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생활과학연구소)

북리뷰 I. 신간소개

권오승·김대인·이상현 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 이효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현진·공석기 저, <뒤돌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 | 김의영(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하네스 B. 모슬러 저, <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 | 장 훈(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북리뷰 II. 문헌서평: 중앙아시아 연구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이슬람 정책의 변화 | 양승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국제경제, 권위주의 국가 그리고 체제전환기 시민사회 |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중앙아시아의 민족분쟁: 1990년 6월 키르기스스탄 오쉬(Osh) 사태의 그림자 | 김태연(서울대 노어노문학과)

<아시아리뷰> 4권 2호(통권 8호)

아시아는 통한다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 이재열

동아시아의 창조성 | 김청택

갑오년(1894년과 2014년)의 동아시아와 한국의 미래

동아시아의 꿈: 1894년과 2014년 지역질서 건축 | 손 열

갑오개혁기 조선의 국가·자주 개념의 변화: 김윤식을 중심으로 | 김성배

갑오개혁의 정치사적 의의와 현재적 시사점: 제2차 김홍집·박영효 내각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중심으로 | 김현철

1등 (혹은 2등): 1894~2014년간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선호 | 브루스 커밍스

갑오전쟁이 중국 및 한국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 류더빈



자유주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중국-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 예브게니 홍·신범식

일본 국민들의 영유권 인식 조사: 일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 김미경

'문화 냉전'과 유학 오리엔테이션 영화: 미군정 하 일본 본토 및 오키나와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 쓰치야 유카

북리뷰

Tessa Morris-Suzuki, et al., East Asia Beyond the History Wars: Confronting the Ghosts of Violence | 안청시

Emiko Ochiai and Leo Aoi Hosoya,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 홍찬숙

Prasenjit Duara, The Crisis of Global Modernity: Asian Traditions and a Sustainable Future | 조영한

Prasenjit Duara, The Crisis of Global Modernity: Asian Traditions and a Sustainable Future | 김상준

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A QUEST FOR EAST ASIAN SOCIOLOGIES - Seunk Kuk Kim, Peilin Li, Shujiro Yazawa | SNUPRESS

이 책은 현재 동아시아 및 전 세계의 핵심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회현상들, 예컨대, 세계화와 동아시아, 불평등, 다문화주의, 사회운동, 위험사회 등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분석한다. 상호경쟁적이면서도 협력하는 수많은 동아시아 사회학들을 추구한다.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맑스주의가 공존하고 아니기 쯤 등장한다. 발전주의국가론과 더불어 세계시민사회론이 제안된다.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확충뿐 아니라 비판적 시민운동과 자본주의 비판도 등장한다. 나아가 동아시아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시적으로 결합하면서 형성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기충족적 예언으로서의 동아시아는 불안정한 현실주의와 비판적 역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GLOBAL CHALLENGES IN ASIA - Hyun-Chin Lim, Wolf Schäfer and Suk-Man Hwang | SNUPRESS

아시아의 세기를 맞아 기회와 도전의 측면에서 균형있게 분석한 책이다. 중국의 부상, 아시아의 부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책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과 아시아를 단순히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아시아와 세계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 과연 강대국 중국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인 경쟁 발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아시아의 발전모델은 지속가능한지 등의 논의에서부터 교육과 이민, 사회복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에너지 소비를 늘려가는 아시아 지역이 기후 및 환경 변화, 에너지 문제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또 대처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간과되어온 부분으로, 이 책에서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 총서

노숙 문제의 현실과 대응 - 구인회 외 지음 | 서울대출판문화원

이 책은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시각과 문제의식으로 노숙 문제를 조명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보건학 등 전공분야의 관심사에 따라 노숙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 교육활동, 건강과 보건으로, 규모와 실태, 발생 원인 등의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폭넓은 분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노숙 문제의 비교 연구를 진전시켜 양국 노숙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양국 사회에서 노숙 문제에 대해 보인 대응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의식의 성장과 중국소설: 사대기서부터 홍루몽까지 - 최형섭 지음 | 서울대출판문화원

이 책은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16-18세기 중국 소설 가운데 〈삼국연의〉,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의 '사대기서(四大奇書)'부터 〈홍루몽(紅樓夢)〉에 이르는 변화를 분석, 고찰한 연구서이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했으며,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개인의식은 더 두드러지게 자각되고 발현되었는가? 이 문제는 특히 동아시아 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본질적인 한 부분이다. 이 책에서는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16-18세기 중국 소설을 새롭게 조망하고 분석한다.



도시와 장소 기억 : 근대역사경관의 노스텔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 한지는 지음 | 서울대출판문화원

이 책은 '동양의 파리'로 불렸을 정도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 관한 연구서이다. 중국의 대도시, 혹은 동아시아의 한 도시가 지난 100여 년간의 역사적 경험 속에 마주하게 된 장소 기억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식민기역과 관련된 상하이의 근대 역사경관이 오늘날 도심 재생의 자원이 된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두보배울 연구 - 강민호 지음 | 서울대출판문화원

중국인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 고전문학 중에서도 시(詩)는 그 중심을 차지해 왔고, 그중 두보의 시는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두시가 왜 최고로 평가받는지, 두시가 다른 시인의 시와 대별되는 미학과 성취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의외로 적다. 《두보 배울(排律) 연구》는 그간 간과되어 온 두시의 형식미를 꼼꼼히 짚어낸 책이다. 시적 기법을 시문 하나하나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두시 연구자뿐만 아니라 두보의 시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일반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한류 - 김익기, 임현진 지음 | 진인진

이 책은 한류에 대한 학술적인 개념정리 및 이론적 방법론과 함께 한류의 기원 및 현황을 소개한 전반부와 동아시아 3국에서 수용되는 한류의 양상을 소개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 3국에서의 한류의 수용에 대해서는 심층면접과 초점집단토의 방법을 통한 실증적인 자료들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류의 다양한 장르인 드라마, 영화, 음악, 의상, 음식, 기타 문화상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 및 영향력을 소개하고, 한류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는 반한류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국가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 안덕근, 박지형, 이지홍 지음 | 진인진

이 책은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 소속 연구자들의 공동 저작이다.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화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기존 연구성과를 재검토하고 보다 널리 활용하는 한편, 후속 연구 계획과 내용을 새롭게 검토하는 학술서로서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산동에서 떠오르는 동아시아를 보다 - 정근식, 신혜선 편 | 진인진

이 책은 산동지역을 지리학적으로 개괄한 한 편의 글과 다양한 시각에서 정리한 산동지역의 역사에 관한 다섯 편의 글, 산동지역의 경제현황을 다룬 두 편의 글, 한민족 출신 이민자의 가족사를 정리한 글 한 편, 산동지방의 도시발전을 다룬 글 한 편 및 황해를 중심으로 한 산동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 한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해당 분야의 상세한 이론적인 배경과 함께 답사과정에서 채록된 생생한 경험 이 결합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동지역을 중국에 접근하는 첫 관문으로 삼으려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 기획

말레이 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 - 오명석, 전제성, 강윤희 외 | 놀민

이 책은 종교, 언어, 생활방식, 관습 등에 대한 이해, 환경보호, 노동사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지인과의 조화, 현지에서의 자녀 교육 문제 등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날 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인류학적인 관점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한층 수준 높은 차원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아시아 연구의 대중화를 위해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활동은 물론 이를 통해 생산된 아시아 관련 지식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아시아와 아시아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4년 3월 개설 이후 11개월 만에 구독자수가 1,200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아시아연구소 소식(온라인 뉴스레터) 발간

기존에 종이로 연 1회 발행되던 뉴스레터를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하여 격월 간의 <아시아연구소 소식>을 2014년 11월에 창간했다. <아시아연구소 소식>은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되는 소식지로, 단순한 행사 홍보가 아닌 학술행사 후기와 인터뷰, 현장답사 후기 및 다양한 기고와 뉴스 등을 담아 내실 있는 소식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기기로의 접속을 고려한 반응형 웹으로 페이지를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이 접속하여 풍부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언론에 비친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 아시아 대형이슈 공동연구 활성화될 듯 | 문화일보 2014. 3. 24
- "한국, 미-중 주도 무역체제 활용에 동북아 브뤼셀 돼야" 서울대 임현진 교수-싱가포르국립대 두아라 교수 대담 | 중앙선데이 2014. 4. 13

<별에서 온 그대> 세미나

- '별그대' 중 열풍... '사회주의 속 절제된 욕망 건드려' | 연합뉴스 2014. 5. 23
- "중국은 왜 한국 드라마를 못 따라가나" | 한국경제 2014. 5. 24

페더스톤 교수 초청 강연

- 페더스톤 교수 초청 강연회 | 중앙일보 2014. 7. 22

이주와 개발 국제 세미나

-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주와 개발...' 국제 세미나 | 연합뉴스 2014. 8. 21
- "이민 정책, 급격한 변화보다 일관성이 중요" | 연합뉴스 2014. 8. 22

임현진 창립 소장 정년퇴임

- "시민운동을 정치권 입문 발판 삼으면 안돼... 사회 바로잡기에 주력해야" | 한국일보 2014. 7. 24
- [뉴스시 초대석] 정년퇴임 임현진 서울대 교수 "4나이 세월호 해결 가로막고..." | 뉴스시 2014. 8. 27

미-중관계 프로그램 소개

- "美-中관계 심층 이해 한국, 생존의 문제다" | 문화일보 2014. 9. 25



‘아시아는 통한다’ 특별 기획 기사

아시아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선일보와 공동 기획으로 ‘아시아는 통한다’ 특별 기획 기사 시리즈를 연재했다. 아시아의 인구이동,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 아시아 창조성, 아시아의 환경위험,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조약의 네트워크,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 등에 관한 연구와 취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9~10월에 5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특집기사 시리즈로 게재되었다.

먼저 은기수(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경 사라지는 아시아’를 주제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활발한 인구 이동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로는 이재열(사회학과) 교수가 ‘덜 행복한 아시아’란 제목으로 소득 수준 대비 행복도가 낮은 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을 사회 투명성 부족에 따른 낮은 신뢰도 때문이란 점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김청택(심리학과)교수가 아시아의 창조성을 주제로 다양성 수준이 낮은 아시아의 특성을 지적하며 문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로는 이근(경제학부) 교수가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경제추격 속도 비교에서 한국의 속도가 아시아 경쟁국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수진(지리학과) 교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재난, 재해 피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기획 기사 시리즈는 점점 더 긴밀해지는 아시아의 다양한 모습들을 실증적 분석과 대중적 접근을 결합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기사 작성과 연계하여 진행된 연구 성과들은 ‘아시아는 통한다’라는 제목의 콜로키움을 통해 학술적으로 발표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는 <아시아리뷰>의 특집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 [아시아는 통한다] 동남아→동북아 移住... 최근 13년새 2배 늘어(2000년 66만명→2013년 117만명) | 조선일보 2014. 8. 21
- [아시아는 통한다] 2천만명(2013년 기준), 일자리·결혼 위해 아시아내 대이동... 人口지도가 바뀐다 | 조선일보 2014. 8. 21
- [아시아는 통한다] 돈 벌어도 불행한 아시아... 韓·中·日, 불신이 낳은 ‘幸福의 역설’ | 조선일보 2014. 8. 22
- [아시아는 통한다] '정부·민간 투명성' 높여야 국민 행복도 높아져 | 조선일보 2014. 8. 22
- [아시아는 통한다] "다름을 칭찬하고 물음을 장려하라" | 조선일보 2014. 8. 23
- [아시아는 통한다] 위아래 따지는 아시아 문화가 天才를 평범하게 만든다 | 조선일보 2014. 8. 23
- [아시아는 통한다] '경제추격 속도' 한국 23위... 싱가포르(4위)·홍콩(9위)·대만(18위)에 뒤져 | 조선일보 2014. 8. 27
- [아시아는 통한다] 한국 둘러싼 '災害의 고리'... 東아시아 재난 30년새 87배 급증 | 조선일보 2014. 10. 10

박사학위 논문상

- 이영진 전남대 연구교수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 광주매일신문 2014. 10. 8
- 전남대 이영진 교수,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 국제뉴스 2014. 10. 8
- 이영진 전남대 HK연구교수, 서울대 靑연구소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 광남일보 2014. 10. 9

인도네시아 문화주간

- '오감으로 느끼는 인도네시아'...서울대서 문화주간 행사 | 연합뉴스 2014. 11. 19
- '오감으로 느끼는 인도네시아'...서울대서 문화주간 행사 | 충청일보 2014. 11. 19

대학원생 포럼

- <게시판> 서울대, 아시아연구 대학원생 포럼 | 연합뉴스 2014. 1. 10

한센병 회복자 사진전

- [차 한잔 나누며] '한센인' '환자'보다는 '한센병 회복자'로 불러주세요 | 세계일보 2015. 1. 23
- "일본에서처럼 '외로운 늑대'로 타협하지 않고 짝짓다" | 한겨레 2015. 2. 1



후원/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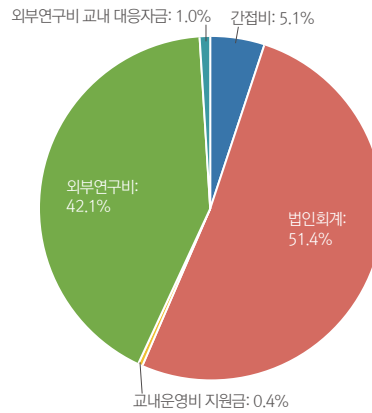
연구기금

(주)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10억 원)
(주)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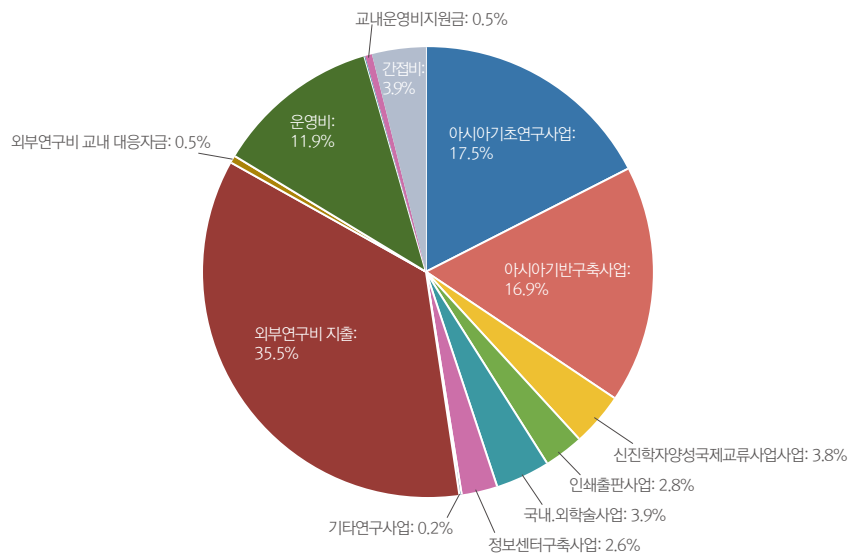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
(학술교류기금, 1억 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임현진 교수
(임길진 Fellowship, 1억 원)

※2009년 이후 누적분임

수입: 총 3,506,869,000원



지출: 총 3,020,524,000원



* 외부연구비(수입): 국제교류재단(2014. 3 ~ 2015. 2 KF Global e-School),
한국연구재단(2014. 9 ~ 2015. 2 외부연구비 지원사업 참조)

* 외부연구비 교내 대응자금: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대응자금

* 외부연구비(지출): 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재단(2014. 3 ~ 2015. 2)

* 그 외 사업기간 회계 및 산정 기간: 2014. 3 ~ 2015. 2

- 2009년 2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창립 소장: 임현진 교수)
- 2009년 9월 제1회 SNUAC 국제학술대회 '아시아란 무엇인가: 회고와 전망' 개최
- 2010년 7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신축건물 기공(2013년 2월 완공)
- 2010년 9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 2011년 3월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 2011년 10월 제2회 SNUAC 국제학술대회
'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 개최
-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 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
- 2013년 3월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시작
- 2013년 4월 <열린강연> '이제는 아시아시대' 개최
- 2013년 5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 2013년 9월 제2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강명구 교수)
- 2013년 9월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 2014년 3월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개최
- 2014년 9월 신흥지역연구 사업 2단계 진입, SSK 사업 중형 단계 진입(국제무역, 통상질서 그리고 표준화 연구단) 및 신규 유치(동아시아와 도시연구단), 토대연구사업 선정



사람들

*2015년 2월 기준

소장 강명구(언론정보학과)
 부소장 김청택(심리학과)
 학술연구부장 홍백의(사회복지학과)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동북아시아센터장 정근식(사회학과, 평의원회 의장)
 동남아시아센터장 오명석(인류학과)
 중앙아시아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대중문화 프로그램 디렉터 김홍중(사회학과)
 미-중 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창립소장)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아시아센터스 프로그램 디렉터 이재열(사회학과)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 박배균(지리교육과)
 환경협력 프로그램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선임연구원

공석기(사회학)
 고가영(역사학)
 김동완(도시계획학)
 김민정(국제학)
 김민환(사회학)
 김유미(국제학)
 김은혜(사회학)
 김중철(사회학)
 남은영(사회학)
 남영호(인류학)
 신혜선(언론정보학)
 엄은희(지리교육과)
 양승조(역사학)
 이수현(경영학)
 이요한(국제관계학)
 정법모(인류학)
 주윤정(사회학)
 최경희(정치외교학)
 최종호(정치학)

행정지원

이상환(행정실장)
 장보영(일반행정)
 조하은(연구과제관리)
 백현지(국제교류)
 김고운(학술연구)
 최현아(부속실)
 박종홍(디자인)
 이성민(홍보)
 송신의(출판)

국제자문위원

김영석(3Plus Logistics회장)
 김정구(엠쓰리미디어 아시아공동대표 회장)
 박홍규(前 국립외교원 교수)
 신의항(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명예교수)
 장호권(사상계 발행인 및 편집인)
 정우성(前 벨기에 유럽연합대사)
 최인수(前 서울대 미술대학 학장)

객원연구원

공 치(Sichuan University, China)
 김광익(서울대 명예교수)
 김수진(이화여대)
 김용덕(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연(연세대)
 김현준(고려대)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Yamato Yumiko(Kyushu University, Japan)
 정미경(부산외대)
 최정욱(건국대)
 홍정표(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 Japan)
 황석만(창원대)

방문연구원

Khongor Tsogt(National Chiayi University, Taiwan)
 NU NU Lwin(Monywa Institute of Economics, Myanmar)
 Sven Horak(St. John's University, USA)
 Tran Van KHAM(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NU Hanoi, Vietnam)
 Wu Jiewei(Peking University, China)
 Yevgeniy Khon(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Kazakhstan)
 김미경(Hiroshima City University, Japan)
 김성영(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김종미(Coventry University, UK)
 손정원(University College London, UK)
 신성희(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Singapore)
 윤오순(University of Exeter, UK)
 이지원(한림대)
 이현선(University of Tokyo, Japan)
 조규훈(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최해욱(Tsinghua University, China)



2014 연차보고서

발행처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행일 : 2015년 3월 31일

발행인 : 강명구

기획 : 홍보위원회

편집 : 신혜선, 이성민, 김고운

디자인 : 박종홍

주소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화 : 02-880-2692

팩스 : 02-883-2694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Phone : 02-880-2692

Fax : 02-883-2694

Homepage : <http://snuac.snu.ac.kr>

Facebook : <http://www.facebook.com/snuac>

Newsletter : <http://snuacnews.snu.ac.kr>

E-mail : snuac@snu.ac.kr